

의 문턱에서

지옥의 문턱에서

*악령에 관한 정교회 교리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알렉산드르(밀레안트) 주교

목차:

서론.....	3
성경 악령에 대하여	6
귀신 들림 및 점령	17
사탄의 그물	26
오컬티즘의 유혹	38
악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66
사탄의 왕국 불타는 지옥의 문턱에서	75
결론.....	78
악령들의 중상모략을 물리치는 기도.....	79
엑소시스트들을 위한 경고	86
엑소시즘에 관한 기사의 각주.	92

서론

“내가 너와 여자와 네 후손과 그녀의 후손 사이에 원한을 두리라. 그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15).

오직 물질적 이익과 육체적 감각만을 좇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선한 영과 악한 영이 공존하는 영적 세계의 존재, 사후 세계와 같은 “추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온전히 일상적인 걱정거리들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갑자기 어떤 예상치 못한 충격이 그를 뒤흔들면, 그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존재의 목적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리고 삶의 영적·도덕적 측면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자, 그는 그동안 그토록 믿어왔던 과학이 자신의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전혀 무력하다는 사실을 금세 깨닫게 된다.

만약 그 안에 종교적 감정이 완전히 죽어 있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고, 기도하기 시작하며 성경을 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일탈이 아니라, 진정으로 삶의 중대한 전환점이며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진심 어린 소망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내면의 시야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실 것이다. 그 사람은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과 그분의 친밀함, 그리고 아버지 같은 사랑을 뚜렷이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그는 세상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풍요롭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는 선과 악을 더 예민하게 구별하게 될 것이며, 영적인 세계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존재들은 선한 방향으로, 다른 존재들은 악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 외에도 천사와 악마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알아가는 것은 흥미롭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이 주제에 관한 문헌은 매우 방대하고 모순적이며, 허구와 온갖 환상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간결하면서도 매우 명확하고 정확합니다. 성경은 빛나고 선한 천사들이 존재하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각자의 수호천사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천사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책자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선교 전단지 제14호, “천사들” 참조).

천사들 외에도 악령들이 존재합니다. 성경과 삶의 경험은 그들이 실제로 존재하며, 모든 사람에게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재적이고 지속적인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줍니다. 인간 사회에서 정상적이고 선의의 사람들과 함께 온갖 범죄자, 타락한 자, 사이코패스, 가학자 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영의 세계에서조차 밝고 선한 천사들 외에도 영적 세계의 “쓰레기들”인 마귀와 악령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아무도 범죄자나 사디스트, 음란한 자로 태어나지 않고, 무질서하고 죄악된 행위의 결과

로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도 모든 존재는 처음에는 선하고 선의가 있었지만, 그 후 그들 중 일부는 악한 길을 선택하여 타락하여 의도적으로 악해졌다. 범죄적인 행위의 결과로 그들의 천사적 이성 은 흐려졌고, 그들은 사악하고 충동적이며 무질서해졌습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온갖 악을 퍼뜨리는 데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이 소책자에서는 독자들에게 타락한 천사에 대한 정통 기독교 교리를 소개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사람들을 유혹하고 악을 퍼뜨리는 방법, 그리고 그들의 계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설명할 것입니다. 특별한 장을 할애하여, 인간 사회를 점점 더 광범위하게 장악해 가는 현대의 오컬티즘과 데모니즘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현대 ‘흑마술적 영성’의 확산을 우려하며 지켜볼 때, 성경의 예언이 떠오릅니다.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아, 화가 있을지어다. 마귀가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큰 분노를 품고 너희에게 내려왔기 때문이다*”(계 12:12). 그러나 위로가 되는 것은, 어둠의 왕의 그 성공 자체가, 천사들과 성도들에게 둘러싸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땅에 오실 때 그가 완전히 패배하고 형벌을 받게 될 날이 가까웠음을 예고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마귀는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질 것이며... 거기서 밤낮으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것이니... 하늘아, 이를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을 내리셨느니라!*”(계 18:20, 20:2-10). 지옥 왕국의 모든 세력이 패배한 후, 새로운 존재의 단계가 도래할

것이며, 유혹하는 영의 유혹을 이겨낸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태양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악령에 대하여

성경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 외에도 거대하고 다양한 영적인 세상이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은 우리 세상과 너무나도 다르며 훨씬 더 풍요로워서,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심지어 만족스럽게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세상과 물질적인 세상은 어느 정도 서로 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두 가지 서로 다르고 심지어 상반된 존재 영역으로 나뉩니다. 그중 하나는 “천국”이라 불리며, 이는 하나님께서 복된 영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빛의 왕국입니다. 그곳에는 천사들과 의인들의 영혼이 거합니다. 다른 영역은 지옥으로, 어둠의 왕국이자 고통의 장소로서, 악마들과 죄인들의 영혼이 고뇌하는 곳이다. 악마들은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실체가 아니다. 비록 그들은 불멸이지만 영원하지는 않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우리의 물질적 세계가 창조되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영적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곳에 천사들

을 채우셨다. 천사들은 이성적이고 선한 존재들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성과 자유 의지, 그리고 우리와 비슷하지만 더 완벽한 다양한 능력을 부여하셨다.

그들의 존재 기간 중 어느 시점, 분명히 우리 물질 세계가 창조되기 전이었을 때, 천사들의 세계에서 비극이 일어났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던 천사 중 하나인 *데니차*(루시퍼)를 필두로 한 일부 천사들이 창조주에 대한 복종을 저버리고 천사들의 세계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신학자 요한 사도는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마귀)과 싸웠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그들과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 더 이상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큰 용, 곧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가 땅으로 내쫓겼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계 12:7-9).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시며,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다(눅 10:18). 사도 베드로와 유다도 이 사건에 대해 매우 간략하게 언급하며, 천사들 중 일부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정해진 거처를 떠났다고만 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기다리며 영원한 어둠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베드로후서 2:4; 유다서 6).

참고: 방금 인용된 본문을 처음 읽을 때 독자는 그 전쟁이 지구가 이미 존재하던 시기에 천사들의 세계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종종 시간적 순서가 아닌 개념적으로 서로 연결된 여러 사건들을 하나의 환상 속에 통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묵시적인 묘사는 마귀가 하나님께로부터 배반했을 때 지구가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마귀가 지상에서 우리와 벌이고 있는 전쟁이 사실 하늘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전쟁에서 패배했듯이 주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 현재의 전쟁에서도 패배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성경의 여러 구절을 대조해 보면, 새벽별이 타락한 원인은 그의 **교만**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시라 10:15; 딤후 3:16). 선지자 이사야는 새벽별을 교만한 이방 통치자의 모습으로 묘사하며 그의 오만함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아침 별아, 새벽의 아들아, 네가 하늘에서 어떻게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짓밟던 자여, 땅에 내동댕이쳐졌도다. 네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내 보좌를 세우고, 북쪽 끝의 산에서 신들의 무리와 함께 앉으리라. 구름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아지리라. 그러나 너는 지옥, 음부의 깊은 곳으로 내쫓겼다’”(사 14:12-15). 이 사야가 그린 이 그림을 선지자 에스겔이 보완하며, 새벽별을 오만한 티레 왕의 모습으로 묘사한다:

“너는 완전함의 인장이요, 지혜의 총만이요, 아름다움의 면류관이라. 너는 에덴,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으니, 네 옷은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도다. 루비, 토파즈, 다이아몬드, 크리스탈라이트, 옉닉스, 야스피스, 사파이어, 카르분크, 에메랄드, 그리고 금, 이 모든 것이 네게 정교하게 박혀 있고

네 몸에 꿰어져 있었으니, 이는 네가 창조된 날에 준비된 것이었다. 너는 덮어 주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었고,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웠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었으며, 불타는 돌들 가운데 다녔다. 너는 창조된 날부터 네 길에서 흠이 없었으나, 네 안에 불의가 드러날 때까지는 그러했다. 네 무역이 번성함에 따라 네 속은 불의로 가득 차게 되었고, 너는 죄를 지었다. 그리하여 내가 너를 부정한 자처럼 쫓아내어, 하나님의 산에서, 불타는 돌들 가운데서 그들을 드리우던 케루빔인 너를 쫓아내었다. 네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해졌고, 네 허영으로 말미암아 네 지혜를 망쳤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땅에 엎드리게 하고, 왕들 앞에서 너를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에스겔 28:12-18).

그리하여 신성한 빛을 지닌 최고 천사 중 한 명이 교만함으로 인해 빛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어둠이 되고, 어둠을 퍼뜨리는 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창조주와 동등해지고자 했으며, 그분의 영광과 권능을 빼앗고자 했으나, 결국 자신의 하찮음과 배은망덕함만을 드러냈을 뿐이었다. 타인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줄 힘이 없었던 그는 거짓말을 유혹의 가장 주요한 도구로 삼았으며, 그 결과 거짓말은 마치 그의 본질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그가 말하는 것, 행하는 것, 약속하는 모든 것은 가장 뻔뻔한 거짓말이며, 때로는 진실처럼 보이는 외피를 교묘하게 두르고 있을 뿐이다. 그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성경은 그를 *사탄이라* 불렀는데, 이는 히브리어로 ‘중상모략자’를 의미한다. 그리스어로는 이것이 ‘마귀’라는 명칭에 해당한다. 뱀, 용, 벨제뿔, 벨리 아르, 어둠의 왕, 악마의 왕, 대적, 이 세상의 왕, 인류의 원수, 교활한 자 등과 같은 그의 다른 명칭들은 그의 사나움과 그의 활동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보여준다. 그를 따랐던 천사들을 성경은 악마, 귀신, 부정한 영 또는 악한 영이라고 부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잃은 마귀는 순수하고 무죄하게 창조된 인간들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시켰다. 첫 번째 인간을 유혹한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다. 하와가 아담보다 더 유혹에 취약할 것이라고 판단한 마귀는 바로 그녀에게 교활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와는 그렇게 던져진 질문에 숨겨진 교활함을 눈치채지 못하고, 유혹자에게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었는지 설명해 줍니다. 하와가 순진하고 말 많은 상대임을 알아차린 악마는 그녀를 설득하기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시기심 때문에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만약 그들이 자신, 즉 뱀의 말을 듣는다면, 그들 스스로 신과 같이 되어 모든 비밀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한 후, 그는 하와의 도움을 받아 아담까지 유혹합니다. 이렇게 악마는 치명적인 죄의 독으로 인간의 본성을 타격합니다. 우리

의 첫 조상들의 삶에서 이 비극적인 순간을 지적하시며, 구세주께서는 마귀를 “*태초부터 사람을 죽이는 자*”라고 부르셨습니다(요한복음 8:44).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과 에덴에서 살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들 안에서는 영적 힘과 육체적 힘의 균형이 깨졌고, 그들은 도덕적으로 연약해져 죄를 짓기 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된 그들은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고, 죽을 운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서』의 저자는 마귀를 인류의 모든 불행의 근본 원인으로 본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을 썩지 않게 하려고 창조하시고, 그분을 영원히 존재하시는 본성의 형상으로 만드셨으나, 마귀의 시기심 때문에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솔로몬의 지혜서 2:23-24).

순진한 사람들을 치명적인 독침으로 찌른 뱀은 승리를 자축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그에게, 그가 시작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예언하셨다. 아내를 유혹한 그는 언젠가 그녀의 **후손에게** 패배를 당할 것이다: “*내가 너와 아내 사이에, 너의 씨(후손)와 그녀의 씨 사이에 원수를 두리라. 그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창 3:15). 이 놀라운 예언은 인류의 이후 역사를 결정지었으며, 이는 본질적으로 유혹하는 영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사이의 전쟁이 되었다. 가장 직접적인 의미에서 이 예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며(*발뒤꿈치*

를 찢리심으로써) 고대의 용의 머리를 부수셨을 때 성취되었습니다. 그때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는 “[
어둠의 왕국]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서 권세를 빼앗으시고, 그들을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
며, 친히 그들을 이기셨습니다”(골 2:15). 더 넓은 의미에서 이 예언은 각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성취
되는데, 그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유혹자를 물리칠 때(눅 10:19) 그러하며, 비록 그 자신도 때
로는 그리스도처럼 육체적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말이다.

구약 성경의 후속 기록들은 마귀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들은
변함없이 마귀를 교활한 유혹자이자 온갖 악의 씨를 뿌리는 자로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 마귀는 의로운
욥을 발끝부터 머리까지 심한 종기로 치게 했습니다(욥기 1:6-22); 사울 왕을 지배하여 그를 괴롭혔다(열
왕기상 16:14-15). 마귀는 다윗에게 백성을 조사하려는 허영심 어린 생각을 불어넣었다(역대하 21:1). 악
마 아스모데는 라구엘의 딸 사라의 남편들을 죽였다(토비트 3:8). 같은 시기심, 교활함, 간사함의 성질을
지닌 악령은 열왕기(열왕기하 22:19-23)와 선지자 스가랴서(스가랴 3:1-2)에서도 묘사된다.

인류의 타고난 종교성을 고려하여, 악마는 이 종교성을 왜곡하고 미신과 광신으로 이끌려고 애쓴다
. 바로 그가 사람들에게 온갖 거짓 신들—자연의 힘, 별과 행성, 전설 속의 영웅들, 동물, 괴물, 그리고 원
시인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숭배하도록 가르쳤다. 미신에 물든 이교도들은 다양한 사

물을 신으로 숭배함으로써, 그 경의를 마치 자신들에게 바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악령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신명기 32:17; 고린도전서 10:20).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악령에 대한 기록. 그리스도 탄생 무렵까지 우상 숭배와 온갖 미신이 만연했던 것은 인간 사회에서 악령들이 지나치게 세력을 팽창시키는 데 일조했다. 이러한 세력 확장의 외적 징후는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즉 많은 수의 귀신 들린 자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이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세상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들을 마귀의 폭압에서 해방시키시기 시작하셨습니다(마 12:24-29; 요일 3:8; 히 2:14). 복음서에서 독자는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신 수많은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마 4:24, 8:16, 9:31; 막 1:32-34; 눅 4:41, 8:2, 11:4). 그중에서도 귀신 들린 소년(마 17:14-21), 가나안 여인의 딸(막 7:24-29), 그리고 가다라 출신의 두 귀신 들린 자(마 8:28-34, 막 5:1-19)를 치유하신 사례가 특히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한 사람에게 한 마리가 아니라 온 군단, 즉 엄청난 수의 귀신이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귀신 들린 자들의 치유에 관한 복음서 기록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거기서 다루는 주제가 간질이나 다른 신경 질환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재하는, 타인을 괴롭힐 때 즐거움을 느끼는 의도적으로 악한 존재들을 **쫓아내는** 것임을 확신하게 된다.

의심하는 자들 앞에서 악령들의 잔혹함을 여실히 드러내기 위해, 주님께서는 어느 날 악령들이 사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풀을 뜯고 있던 돼지 떼로 옮겨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경악한 군중의 눈앞에서, 미쳐 날뛰는 거대한 돼지 떼가 절벽 쪽으로 달려가 호수로 뛰어들어 익사하고 말았습니다(마가복음 5:13). 영들이 한 존재에서 다른 존재로 순식간에 옮겨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일반적인 정신 질환의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됩니다. 복음서와 다른 귀신 쫓아내기에 관한 기록을 읽어보면, 귀신 들림의 일련의 특정한 **증상들이** 드러난다. 첫째, 귀신 들린 자들은 모든 신성한 것과 신성한 것에 대해 특정한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귀신 들린 자들은 경련을 일으키며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불행한 사람에게 깃든 악령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께 별을 잠시 미루어 주시고 그들을 심연으로 보내지 말아 달라고 간청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마 8:29; 막 5:7). 게다가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귀신 들린 자의 목소리는 부자연스럽고 비인간적으로 변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하는 이가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를 통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마침내, 귀신이 나간 직후, 이전에 귀신 들렸던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고, 귀신 들림의 모든 징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러한 특정한 귀신 들림의 증상은 현대의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도 관찰할 수 있다. 회의론자들이 기적을 믿고 싶지 않다면, 적어도 귀신 들린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영적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귀신 들림에 대한 주제는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겠다.

사도들의 귀신 쫓아내기. 다가올 전 세계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 제자들을 준비시키시면서,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악마의 폭력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계속하라고 맡기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둘씩 [도시와 마을로] 보내기 시작하시고, 더러운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마 10:1; 눅 9:1; 막 6:7). 사도들은 더러운 영들이 그들의 말에 순순히 복종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기쁨으로 구주께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주여, 귀신들도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종하더이다*” (눅 10:17).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온갖 더러운 초자연적 세력을 쫓아내도록 맡기신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이길 권세를 주노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하리라*” (눅 10:19).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주님께서는 마귀의 세력을 짓밟는 것이 교회의 뚜렷한 표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가복음 16:17).

실제로 복음의 전파는 변함없이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일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 베드로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친 사례(행 5:16)가 기록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는 사도 빌립에 의해 “

더러운 영들이 많은 사람에게서 비명을 지르며 나갔다”(행 8:7)는 기적이 있었으며, 이어 사도 바울이 한 소녀에게서 점치는 영을 쫓아낸 일도 있었다(행 16:16-18). 게다가 하나님의 은혜는 때때로 너무나 풍성하게 역사하여,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의 소유물을 귀신 들린 자들에게 대면 귀신들이 환자들 몸에서 나갔습니다(행 19:12).

사도 시대부터 악마를 쫓아내는 기도는 세례 성사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통치자를 이기시고, 그에게서 사람들에게 대한 모든 권세를 빼앗으시며, 교회에게 그와 그의 더러운 영들과 싸울 수 있는 큰 능력을 주셨지만,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더러운 영들이 우리 각자에게 크고 지속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구하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촉구합니다.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5:8).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와 그의 악령들은 우리와 가까운 영역, 이른바 “공중의 영역”에 그들의 활동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거역하거나 죄악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마귀는 자신의 신하로 여기

며, 교회를 대적하는 데 이용합니다. 사도의 말씀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공중에서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반역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의 뜻대로*” 살아갑니다(엡 2:2).

이제 마귀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활동하며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귀신 들림과 사로잡힘, 그리고 오컬티즘과 마법을 통해 사람들을 유혹하고 노예화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귀신 들림 및 점령

성경은 귀신 들림을 영적 점령은 물론 자연적인 정신 질환과도 구별합니다(마 4:24, 9:32-34; 막 1:34; 눅 7:21, 8:2). 인간 본성의 극도의 복잡성 때문에 귀신 들림의 본질을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악령이 사람의 의지를 죄로 이끌려고 시도하는 단순한 악령의 영향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이 경우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며, 닥친 유혹을 기도로 물리칠 수 있다. 귀신 들림은 또한 마귀가 사람의 이성과 의지를 장악하는 종류의 정신 질환과도 구별된다.

보아하니, 귀신 들림이 일어날 때 악령은 신체의 신경-운동계를 장악하는데, 마치 그 사람의 몸과 영혼 사이에 침투하는 것처럼, 그 결과 사람은 자신의 움직임과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

나 광란 상태에서 악령이 광란자의 영혼의 힘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그 힘들은 단지 스스로 드러내지 못할 뿐인 것이다. 영혼은 어느 정도 스스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지만, 신체 기관을 제어하는 데는 완전히 무력하다.

영혼을 피아니스트로, 몸을 그랜드 피아노로 비유한다면, 악령은 피아니스트와 악기 사이에 끼어들어 미친 듯이 건반을 두드리는 사나운 고릴라에 비유할 수 있다. 자신의 몸을 통제하지 못하는 귀신 들린 자들은 그들을 노예로 만든 사악한 영의 희생자이므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 그들은 사악한 영의 노예들이다.

귀신 들림은 다양한 외적 형태를 띠 수 있다. 때로는 귀신 들린 자들이 날뛰며 주위의 모든 것을 부수어 주변 사람들에게 공포를 안기기도 한다. 이때 그들은 종종 비인간적인 힘을 드러내는데, 예를 들어 가다라의 귀신 들린 자는 자신을 묶으려던 어떤 사슬도 찢어버렸다(막 5:4). 또한 귀신 들린 자들은 스스로 온갖 상처를 입히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초승달이 뜰 때면 불 속으로, 또 물 속으로 뛰어들던 귀신 들린 소년이 그러했다(마태복음 17:15). 그러나 귀신 들림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자신의 자연스러운 능력을 상실하는, 더 조용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예를 들어, 복음서에는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 내시자마자 다시 정상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한 귀신 들린 병어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는 주님

께서 악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후 몸을 곧게 펴게 된 굽은 여인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 불쌍한 여인은 18년 동안 몸을 굽힌 채 지내왔습니다(누가복음 13:11).

어떤 경우에는 귀신 들린 자들이 투시력과 예언 능력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예언함으로써 주인들에게 상당한 수입을 안겨주던 한 소녀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사도 바울이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자, 그녀는 그 능력을 잃게 되었다(행 16:16-19). 비록 기독교 신앙이 확산되면서 귀신 들림 현상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무슨 일이 귀신 들림을 초래하며, 누가 악령이 사람을 지배하고 괴롭히도록 허락하는 것일까요? 40여 년의 생애를 귀신 들림 문제에 헌신하고 이 주제에 대해 일련의 주요 연구서를 집필한 독일 목사 쿠르트 코흐 교수에 따르면,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사례에서 귀신 들림의 원인은 오컬트주의에 대한 몰두였습니다: 즉, 당사자가 생애의 어느 시기에 오컬트 활동에 직접 관여했거나, 오컬트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거나, 혹은 이전에 가족 중 누군가가 이에 관여했던 경우이다. 여기서 오컬트란 영혼 소환, 영매술, 점술 및 점쟁이에게 의지하는 행위, 요가, 초감각적 치유, 백마법과 흑마법,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비

록 의식적으로 아니더라도) 타락한 영들의 도움을 받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처럼 오컬티즘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와 손주들까지 위험에 빠뜨립니다.

기독교에서 멀어지고 오컬티즘에 대한 열풍이 점점 더 거세지는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악령의 폭력에 시달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신과 의사들은 악령의 존재를 인정하기를 꺼리며, 대개 귀신 들림을 자연적인 정신 질환의 범주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약이나 심리 치료법으로도 악령을 쫓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악령에 사로잡힌 상태를 자연적인 정신 질환과 구별하는 특징들입니다 [Kurt E. Koch, “Demonology Past and Present,” Kregel Publications, Grand Rapids, Michigan, 1973, 31-52쪽].

모든 신성한 것과 하나님과 관련된 것, 즉 성찬, 십자가, 성경, 성수, 성화, 성병, 유향, 기도 등에 대한 혐오감. 게다가 귀신 들린 자들은 신성한 물건이 시야에서 가려져 있을 때조차 그 존재를 감지하며, 이는 그들을 짜증나게 하고, 병들게 하며, 심지어 광란의 상태로 몰아넣기도 한다.

목소리의 변화. 이 증상은 일반적인 신경 질환에서는 관찰되지 않습니다. 말은 뇌에 의해 제어되는데, 악령들은 뇌를 완전히 지배할 수는 없고 성대만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부자연스럽게 들립니다.

투시력. 악마들은 천사들이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미래를 알지 못한다. 미래는 오직 주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나 악마들은 과거를 알고 있으며,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현재를 꿰뚫어 봅니다. 영적인 존재인 그들은 멀리 떨어진 곳,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도 거의 순식간에 예지자에게 전달할 수 있으므로, 듣는 이들에게는 마치 예지자가 미래를 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지자가 미래를 예언할 때, 그것은 언제나 단지 추측에 불과합니다. 악마들은 풍부한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꽤 정확하게 예견할 수 있다. 물론, 종종 그들은 틀리기도 합니다. 게다가 때로는 그들의 예언이 정확히 그렇게 될 운명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 스스로 자신의 미래와 관련된 무언가를 마음속에 심어놓고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추구하기 시작함으로써 예언된 일이 실현되도록 돕기 때문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치유. 정신과 의사가 정신 질환을 앓는 환자를 치료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반면 악령으로부터의 해방은 순식간에 일어나며, 그 후 모든 귀신 들림의 징후가 사라지고 사람은 정상으로 돌아온다.

갑작스러운 전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깃들어 있던 악령이, 그를 쫓아내려는 사람이나 그 가족 구성원에게 갑자기 옮겨갈 위험이 있다. 이 증상은 의사나 정신과 의사들이 겪는 “감염”의 위험과는 구별된다. 정신 질환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다양한 정신적 이상 증상을 보이기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환자 본인은 자신의 의사가 “감염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아무런 안도감을 얻지 못한다. 반면 악령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경우에는, 이전에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귀신 들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반면, 다른 사람은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그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주셨지만, 모든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는 더러운 영들에 관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는데,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위에 절대적이고 피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구주께서 지상에 계실 때,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당황한 사도들은 이 일을 그리스도께 보고하며, 낯선 사람 이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청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금지하지 말라. 너희를 대적하지 않는 자는 곧 너희 편이니라*”(눅 9:50). 분명 이 낯선 사람은 비록 홀로 지내긴 했지만,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해도 더러운 영들과 싸우는 것은 위험하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기적들, 특히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큰 감명을 주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던 중, 어떤 유대인 제사장 스케바의 아들들은, 비록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생계를 위해 주문을 외우던 자들이었기에, 사도들이 사용하던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귀신 들린 자에게서 악한 영을 쫓아내기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갑자기 그 귀신 들린 자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알고, 바울도 알고 있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자 곧바로 주문을 외우던 자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완전히 제압하여 그들은 벌거벗은 채로 구타를 당한 뒤 그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사도행전 19:14-17).

이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실용적인 목적이나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큰 믿음과 경외심으로 불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에서 비롯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보호받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귀신 쫓아내는 일은 교회에서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 즉 사제, 주교, 영적 스승들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분야에서 어떤 개인적인 열의나 무모한 행동도 지극히 위험합니다. 마귀는 매우 위험하고 교활한 적입니다. 자만심에 차서 그와 공개적으로 싸움을 벌이는 사람은 자신의 경솔함으로 인해 매우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빙의는 귀신 들림과 구별되는데, 빙의의 경우 악마가 사람의 이성과 **의지** 자체를 장악하기 때문이다. 귀신 들림에서는 악마가 사람의 육체를 지배하지만, 그 사람의 이성과 의지는 무력하기는 해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한다. 물론, 악마는 우리의 이성과 의지를 강제로 노예화할 수는 없다. 그는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죄악된 삶을 살면서 점차 악마의 영향력 아래로 빠져들게 됨에 따라, 서서히 이를 달성해 나간다. 악마에 의한 점령의 예는 배신자 유다에게서 볼 수 있다. 복음서의 말씀,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누가복음 22:3)는 말은 귀신 들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신자인 제자의 **의지**가 노예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처음에 유다는 선하고 이타적인 동기로 사도들에게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식었고, 자신의 사명이 과연 타당한지 회의감을 느꼈다. 그동안의 노력이 완전히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는 선한 사람들이 사도들의 필요와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 헌금한 공동 기금에서 몰래 자신에게 보상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악마가 점차 자신의 의식을 어둡게 하고 의지를 조종하기 시작한 것을 깨닫지 못했다. 마침내 최후의 만찬에서 악마는 그 불쌍한 제자를 완전히 장악하고, 그를 먼저 추악한 배신으로, 그다음에는 자살로 이끌었다.

마귀에 사로잡힌 또 다른 예는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유대인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들은 모두 반박하고 거부했으며, 그분이 아무리 위대하고 고귀한 일을 하셔도 그들은 모두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이 교만한 자들은 마귀가 인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 그들의 의식과 의지를 장악한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니,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욕망을 행하고자 한다*”(요한복음 8:44).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 특히 우리 고통 많은 조국의 혁명 시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단순히 종교에 무지한 자들이나 평범한 죄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고린도후서 4:4) 하나님과 싸우도록 이용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사악한 자의 불쌍한 희생양이며,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그의 적극적인 종들입니다.

사탄의 그물

“유혹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나, 곧이어 “유혹이 올 수밖에 없느니라” (마태복음 18:7)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올 수밖에 없느니라”는 말은 분명히 우리를 위한 유익을 위함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자만하고 방심하기를 원치 않으시며,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가라지 비유를 통해 유혹의 문제를 부분적으로 밝혀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주님)는 자신의 밭에 좋은 씨(선)를 뿌렸고, 그의 원수(마귀)는 그 가운데 가라지(유혹)를 뿌렸습니다. , 종들이 싹트는 가라지를 발견하고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아도 되겠냐고 허락을 구했을 때, 주인은 허락하지 않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함께 뽑아내지 않도록 하라. 추수 때까지(즉, 심판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때서야 “천사들이 그분의 왕국에서 모든 유혹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모아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 넣을 것” 이다(마태복음 13:24-42). 다시 말해, 유혹을 시기상조로 제거하는 것은 사람들의 영적 발전 과정에 해를 끼칠 것이다.

식물과 동물 세계에서 생존을 위한 투쟁이 더 완벽하고 강인한 종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유혹과의 투쟁 또한 더 굳건하고 덕이 있는 영혼을 형성하게 한다. 귀한 합금이 불로 단련되고, 제자가 시험을 통해 단련되듯이, 장차 하늘나라의 시민이 될 자도 유혹을 통해 단련된다(베드로전서 1:7).

이 구절들과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통해, 유혹하는 영의 제한된 활동은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에게 굴복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에게도 그가 제멋대로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한때 밝고 하나님과 가까웠던 천사가, 이제 사람들을 온갖 추악한 일로 몰아넣는 것과 같은 굴욕적이고 더러운 일을 하게 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떤 이들은 그가 사디스트로서 타인을 괴롭히는 데서 즐거움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그 말도 맞지만, 또 다른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루시퍼가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자. 그는 창조주의 영광과 권능에 맞서고 싶어했으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천사들에게 패배한 후, 이제는 적어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고 시도하고 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선의 씨앗을 품고 있는 한,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한, 그는 이를 직접적으로 이룰 수 없다. 누군가를 장악하기 위해, 악마는 먼저 그 사람의 도덕성을

타락시켜야 하며, 이를 **죄**를 통해 행한다. 수천 년에 걸쳐 사람들을 유혹해 온 악마는 이 더러운 기술에 능숙해졌다. 다음은 그의 주요 수법들이다:

은밀함,

적응,

점진성,

끈질김,

거짓말.

사람이 유혹에 굴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유혹을 자신의 진정한 욕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그는 자신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스스로 열심히 추구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악마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유리한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것 뒤에

숨는다. 게다가 유혹하기 전에, 악마는 사람의 성격과 성향, 약점을 면밀히 연구하고 그에 맞춰 유혹을 조정한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음 이야기는 이러한 유혹의 수법을 잘 보여줍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단합되고 한마음으로 살아서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그중 더 부유한 이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 그 수익금으로 어려운 형제들을 도왔습니다. 이러한 진심 어린 형제애 덕분에 기독교인 중 누구도 궁핍하지 않았으며, 외부인들은 그들을 온 사회의 본보기로 여겼습니다. 그러던 중 부유한 사람인 아나니아는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비칠까 두려워하여, 자신도 재산을 팔아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기부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완전히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 그는 아내 사프이라와 공모하여, 얻은 돈의 일부만 사도들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비상시를 대비해” 숨겨두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였다. 속임수는 그들이 마치 완전히 이타적인 사람인 양 행세하려 했다는 데 있었다. 아나니아가 사도 베드로에게 돈의 일부를 가져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바친다고 엄숙하게 선언했을 때, 사도는 하늘로부터의 계시를 통해 아나니아가 자신을 속이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말했다.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서 일부를 숨기려는 생각을 품게 내버려 두었느냐? 네가 소유한 것*

은 네 것이 아니었느냐? ...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행 5:1-11). 이 말을 듣자마자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우리는 마귀가 아나니아의 비겁함과 허영심을 얼마나 교묘하게 이용했는지 볼 수 있다. 아나니아는 자신의 재산에 집착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관대한 헌금자로 명성을 얻고 싶어 했다. 그래서 마귀는 그에게 재산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모든 사람의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기발한 타협안을 속삭였다. 만약 아나니아가 자신의 돈 중 일부만을 헌금한다고 정직하게 고백했다면, 그 자체로는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허영심 때문에 속임수를 썼다. 그는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다.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가난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이들에게 큰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점진성은 유혹자가 성공적으로 사용하는 또 다른 수단이다. 악에 대한 자연스러운 혐오감을 고려하여, 마귀는 사소한 타협의 형태로 사람을 조금씩 죄를 짓도록 길들입니다. 이때 마귀는 이것이 단지 일회적인 규범 이탈일 뿐이며,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도 그는 여전히 정직하고 덕스러운 사람으로 남을 것이라고 사람을 안심시킵니다. 만약 사람이 유혹에 굴복하면, 악마는 그 후 다시 “사소한” 규범 이탈이라는 명목 아래, 이와 비슷하지만 더 중대한 죄를 저지르도록 제안할 것이다. “나중에 회개하면 돼”라고 유혹

자는 달래줍니다. 이렇게 사람이 유혹에 굴복할수록, 그는 죄의 늪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고, 자신이 이미 자신의 정욕에 휘둘리는 의지 없는 노예이자 어둠의 왕의 먹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점을 다음 예시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뜻밖에도 길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갑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상당한 금액의 돈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지갑 속에서 주인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명함을 발견합니다. 그의 첫 번째 생각은 남의 물건을 서둘러 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유혹자가 그의 귀에 대고 속삭이며, 이 발견물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말합니다. “이건 마치 신의 섭리가 이 힘든 순간에 너에게 돈을 보내준 것과 같잖아. 게다가 여기에는 도둑질이 아니야. 돈이 모두의 눈에 띄는 곳에 떨어져 있었고, 다른 사람도 주울 수 있었으니까.” 이때 양심이 끼어들어 남의 것을 가로채는 것은 죄이며, 주인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속삭인다. 그 돈은 그에게도 필요하니까. 하지만 악마는 양심의 속삭임을 반박하며, 논리적으로 그에게 이렇게 증명한다. “아니, 아무 문제 없어. 넌 남의 주머니를 뒤킨 게 아니니, 주운 건 네 거야.” 만약 사람이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운 돈을 돌려준다면, 정직하게 행동했고 남의 불행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내적 만족

감을 느낄 것이다. 반면 유혹에 굴복한다면, 악마는 그를 더 불의한 행동으로 몰아세우며, 그를 사기꾼, 도둑, 강도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악마의 점진적 유혹 방식은 열두 사도 중 한 명인 유다의 사례에서 특히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유다는 재무 담당자로서, 사람들이 사도들의 생계비와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헌금을 넣는 작은 상자를 관리하고 있었다. 돈을 다루는 일은 언제나 유혹의 빌미가 되기 마련이며, 복음서에서 볼 수 있듯이 유다는 그 유혹에 굴복했다. 그는 조금씩 공동 헌금함에서 자신의 필요를 위해 ‘빌려’ 쓰기 시작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는 유다를 섬세하게 깨우치려 하셨으나 소용이 없었다. 자기도 모르게 유다는 도둑이 되어 버렸다. 결국 이득을 탐하는 욕망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 그는 은화 서른 닢을 받고 자신의 스승을 팔아넘겼다. 이렇게 점차 마귀는 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명을 장악하고, 그를 끔찍한 죄와 자살로 몰아넣었다.

사람의 의지에 직접 접근할 수 없는 마귀는, 외부적 인상들에 좌우되는 생각과 감정을 통해 그 의지를 조종하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청각과 시각에 유혹적인 무언가를 끊임없이 제시하려고 애쓴다. 사람이 최악된 생각과 감정에 굴복해 갈수록, 악마는 그의 의지를 장악하고 그를 사로잡는다.

악마는 우리의 번덕스러움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원칙적으로 어떤 사람이든, 비록 수천 번이나 유혹을 이겨냈더라도, 방심하거나 부주의한 순간에는 언제든지 죄에 굴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그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또 다른 유혹에서 실패를 겪은 후, 그는 사람을 다시 죄로 이끌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끈질기게** 기다린다. 노련한 심리학자인 마귀는 사람이 특히 피곤하거나 속상할 때 가장 약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때로는 사람이 단순히 긴장을 풀고 경계심과 주의력을 잃기를 기다리기도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악마가 찾아와 회오리바람처럼 사람을 덮쳐, 그가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바로 그 죄로 몰아넣는다.

바로 그 끈질김 덕분에 마귀는 구약 시대 가장 위대한 의인인 다윗 왕을 유혹하는 데 성공했다. 다윗은 수많은 박해와 삶의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다. 그의 적들은 기를 꺾었고, 전쟁은 멈췄으며,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월이 찾아오자 다윗은 다소 긴장을 풀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집 지붕에 올라갔을 때, 그는 이웃집에서 수영장에서 목욕하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다.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졌다. 알고 보니 그녀는 다윗 군대의 고위 장교 중 한 명의 아내인 브르사비야였다. 아름다운 이웃 여인과의 만남은 욕정으로 이어졌고, 왕은 죄를 지었다. 브르사비야는 불륜으로 인해 임신하게 되었는데, 이는 유대 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는 형벌에 해당했다. 그녀를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에

서 구하고자 한 다윗은 급히 그녀의 남편을 원정지에서 불러들여, 브르사비야와 함께 지낼 기회를 주어 그녀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믿게 하려 했다. 그러나 브리스바의 남편은 왠지 모르게 그녀와 함께 지내기를 원치 않았고, 곧 적의 어느 도시를 포위하고 있던 자신의 군대로 돌아갔다.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였고, 그때 악마가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기발한 해결책을 속삭였다. 바로 브리스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투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 적의 손에 의해 죽게 만드는 것이었다. 실제로 우리아는 최전선에 투입되어 적의 화살에 맞아 죽었고, 그러자 다윗은 그의 미망인과 결혼할 기회를 얻어 간음의 죄를 은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악마는 다윗의 이성을 너무나도 흐리게 하여, 그가 자신의 이중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이해할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선지자 나단이 꾸며낸 비유를 통해 왕으로 하여금 비슷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도록 한 후에야 비로소 다윗은 자신이 스스로에게 사형을 선고했음을 깨달았다. 공포에 질린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공개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했다(열왕기하 11장). 그는 이 죄를 결코 스스로 용서할 수 없었고, 평생 그 죄를 회개하며, 오늘날까지도 회개하는 죄인들의 마음을 울리는 회개의 기도(시편 50편)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이처럼 자비로우신 주님께서서는 타락한 의인을 마귀의 올가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유사한 일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만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린도전서 10:12). 사탄이 그 끝없는 뻔뻔함으로 구세주조차 유혹하려 감히 시도했다면(마 4:3-10), 과연 누가 그의 계략으로부터 안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경고하시며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영은 원통하나 육신은 연약하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마태복음 26:41).

마귀의 모든 활동과 본질에 스며든 주된 수단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어디서나, 언제나 거짓말—가장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짓말이지만, 더 큰 설득력을 주기 위해 종종 진실의 조각들로 교묘하게 포장되기도 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를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라고 규정하셨습니다(요한복음 8:44).

악마는 우리가 인식하는 바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왜곡하려고** 애쓴다. 사소한 실패를 거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하찮은 쾌락이나 일시적인 이익을 마치 인생의 목표나 다름없는 가장 중요한 일로 포장한다. 죄를 짓도록 부추기면서, 악마는 그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용서받을 수 있는 약점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를 달래준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악마는 그를 절망에 빠뜨리고, 그가 창조주를 영원히 화나게 했으므로 회개하는 것은 소용없다고 주입합니다. 어떤 정욕에 빠진 사

람에게는, 악마가 그가 너무 약해서 고치려 애쓰는 것조차 무리라고 설득합니다. 반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을 마귀는 교만으로 이끌려고 한다. 철학자들의 헛소리와 온갖 종교적 허구를 그는 놀라운 계시로 포장하고, 복음의 가르침은 지루하고 기이한 것으로 묘사한다. 온 힘을 다해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을 그는 교만과 자만심을 통해 타락시키려 한다. 때로는 밝은 천사나 그리스도 자신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 사람이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게 만들기도 한다(고린도후서 11:14). 성인들의 행전에 서는 이러한 환상을 통해 높은 영적 경지에 이른 수행자들을 유혹했던 사례가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다.

억누를 수 없는 권력에 대한 갈망을 품고 있는 마귀는, 인간의 모든 타고난 약점을 억누를 수 없고 혐오스러운 정욕으로 바꾸기 위해 힘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 그는 사람이 스스로를 완전히 더럽히고 짐승보다 더 나빠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죄를 통해 마귀는 그 사람에게 대한 권세를 얻고, 그를 자신의 노예이자 순종하는 도구로 만든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이 악마의 권세는 견고하지 않으며, 그의 철사슬은 거미줄보다도 약하다. 죄인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악마의 모든 권세는 카드집처럼 무너져 내린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요일 3:8). 바로 주님께서 그 강자를 결박하시고 그의 보물들을 빼앗으신 그 지극히 강하신 분이십니다 (마 12:29). 그러므로 구원과

보호를 위해 서둘러 구세주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굳건한 믿음과 덕스러운 삶으로 타락한 영에 맞서면,
약속된 대로 그 영은 우리에게서 도망칠 것입니다(야고보서 4:7),

오컬티즘의 유혹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악마의 교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하셨다”(딤후 4:1).

아이가 어머니에게로 가는 것처럼,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 특히 삶의 어려운 순간에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에게 선을 원하시고 심지어 불가능한 일조차 이루실 수 있는 하늘의 아버지를 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7)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는 육체적 치유를, 누구는 일터에서의 도움을, 누구는 가정의 화목을, 누구는 자녀들의 복을 구하고, 또 누구는 믿음의 확고함을, 기도의 가르침을, 성령을 얻기를 구합니다. 각자는 자신의 영적 수준에 맞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고 뜨거운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오는 모든 이의 간구를 받아주십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사람의 내적 성장을 돕는다는 점에서도 훌륭합니다. 이는 기도가 일방적인 독백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혼에 응답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그 영혼을 비추시는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내면을 비추시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물질적이고 일시적인 것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영원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도록 가르치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

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충만하시면서도 의로우신, 경외해야 할 지고무상하고 전능하신 존재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치 어떤 맹목적인 힘처럼 마음대로 조종할 수는 없다. 그분은 순종해야 할 아버지이시다. 이처럼 처음에는 이러저러한 구체적인 필요에서 비롯된 개인적인 기도 체험은 인간의 **도덕적 완성을** 돕고, 그를 지극한 선인 천국으로 이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건전한 종교성과는 정반대로, 오컬티즘의 병든 “흑마술적 영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초자연적인 요소와 도움을 구하는 마음이 있지만, 창조주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스러운 영들이나 신비로운 비물리적 힘에게서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건전한 믿음이 사람을 고귀하게 만든다면, 불건전한 오컬트적 믿음은 그를 영적으로 불구로 만든다. 그것은 온전히 세속적이고, 하찮으며, 죄악된 것에만 치중한다. 오컬트 활동의 목적은 순전히 실용적입니다. — 비밀을 알아내고, 세속적인 성공을 거두고, 누군가의 사랑을 얻고, 건강을 증진하고, 생체 에너지를 얻고, 자신의 잠재력을 확장하고, 적에게 복수하거나, 단순히 신비로운 것과 “놀아보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모든 것을 육체적 수고 없이, 또한 시민법을 위반하지 않고도 이룰 수 있다는 점에 매료된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사람의 양심을 일깨워 회개하고 바로잡도록 이끈다면, 오컬트 활동은 반대로 그에게 어떠한 도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그냥 가져가서 즐기면 된다! 이러한 도덕적 의무로부

터의 겉보기 자유 속에, 아마도 오컬티즘의 주된 매력이 담겨 있는 듯하다. 하지만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친절한 저승의 영들은 결코 이타주의자가 아니며, 사람은 조만간 받은 대가에 대해 매우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단지 처음에는 모든 것이 쉽고 간단해 보일 뿐이다.

오컬티즘은 인류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낙원에서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은 인간이 오컬트적인 방법을 통해 비범한 지식과 능력을 얻으려는 첫 번째 시도였다(창세기 3장 참조). 주술사, 무당, 죽은 자를 부르는 자 등은 항상 존재해 왔지만, 대부분은 “지하 세계”에서 활동했다. 우리 시대의 주목할 만한 점은 다양한 형태의 오컬티즘에 대한 대중화와 열광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일련의 진지한 현대 연구들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카고 대학교의 비교종교학 및 오컬티즘 분야 학자 중 한 명인 미르체아 엘리아데(Mircea Eliade)는 그의 저서 『오컬티즘, 마법, 그리고 문화적 유행(Occultism, Witchcraft and Cultural Fashions)』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종교사학자로서 나는 현대 서구 문화와 하위문화에서 마법이 누리는 엄청난 인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마법에 대한 열광은 더 광범위한 흐름, 즉 온갖 오컬트 및 밀교적 과학에 대한 높아진 관심의 일부에 불과하다”(The University Press, Chicago IL 1976). 현재 유행하는 “뉴에이지” 사상의 영향으로 미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채널러*(영매)나 *심령술사*(예언가)라고 자칭하고 있으며, 수백만 명이 그들에게 조언과 서비스를 구하고 그

들의 저술에 열광하고 있다. 이러한 채널러 중 일부는 예술계와 텔레비전계에서 잘 알려져 있다. 유럽,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및 기타 국가에서도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컬트 사상의 영향은 심리학, 의학, 철학, 고고학 등과 같은 정통 과학 분야까지 스며들기 시작했다. 가짜 과학적 및 기독교적 용어로 포장된 고대 오컬트 사상을 전파하는 가짜 기독교 종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서점에서는 “뉴에이지” 사상에 전념하는 특별 코너를 볼 수 있다. “중세의 마녀들,” “고대 이집트의 마법,” “비밀 결사의 역사,” “뱀과 무지개,” “아이티 무당과 좀비의 비밀의 말,” “고대 및 금지된 지식 백과사전,” “카발라에서 아스트랄 세계까지: 정신 에너지와 친밀한 관계의 비밀,” “신성한 마법의 책: 오컬트 지식에 필수적인 흑마법의 원천,” “현대 마녀 사전: 매혹하는 법을 알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 “오컬트 에너지를 통해 원하는 것을 이루세요,” “레비테이션 — 그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가.”

미국의 저명한 컬트 전문가인 월터 R. 마틴 박사는 미국인의 60%가 어떤 형태로든 오컬트 기법을 사용하거나 오컬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3,000개가 넘는 오컬트 서적 및 잡지 출판사가 존재하며, 이들의 연간 총 매출액은 10억 달러에 달한다. 원칙적으로 이 분야에 관심이 없는 전통적인 잡지들조차 오컬트 기법, 점성술적 징조, 크리스탈 치료 등에 관한 기사를 실고 있다. 러시아에서도 오컬트에 대

한 열풍이 유행병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실들은 현대 사회의 영적 타락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예고하고 있다.

‘오컬티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occultus*’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대다수에게 숨겨져 있고 접근할 수 없는 무언가를 의미한다. 오컬티즘의 영역에는 신비롭고 비물리적인 힘을 움직이게 하는 다양한 설명할 수 없는 현상과 행위들이 포함된다. 오컬트 활동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추구한다: 1) 일반적인 물리적 수단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 2) 영혼이나 초자연적 힘과 접촉하는 것; 3) 이러한 영혼이나 힘을 조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 다음은 오컬트 교리와 활동의 일부 목록입니다: 전문 점술, 점성술, 손금술, 수비학, 신지학(블라바츠키 협회), 카발라, 인류학, 영매술, 아스트랄 여행, 일부 형태의 신비주의, 초월명상, 영매술 또는 채널링, 요가, 초감각적(비전통적) 치료, 바이오필드 치료, 의식적 코딩, 샤머니즘, 주술, 모든 종류의 백마법과 흑마법.

요즘에는 더 오래된 여러 오컬트 교리를 흡수한 “뉴에이지”라는 오컬트 교리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일부 현대의 이단·컬트는 영들의 “계시”에 의해 생겨났거나, 오컬티즘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오컬트 기법을 활용한다. 그중에서는 로젠크라이처 교단, 레리히 교의(“살아있는 윤리” 또는 “아그니 요가”), 백의 형제단, E. 블라바츠키 협회, “뉴에이지” 운동, 옴 신리케, 크리스슈나주의, 루시우스 트러스트(앨리스 베

일리), 에크칸카(폴 트위첼), 더 칠드런 오브 갓(데이비드 버그), 통일교(문선명), 인문철학회(루돌프 슈타이너), 아스타라(얼린 체니), 물몬교(“교회”)(조셉 스미스와 그의 “천사 모로니”), 크리스천 사이언스(메리 베이커 에디) 등이 있다.

20세기의 계몽된 사람들이 왜 영혼을 부르는 것과 같은 비과학적이고 의심스러운 행위에 몰두하게 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과학과 유물론적 교리만으로는 인간의 더 높은 갈망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 우리 각자 내면에는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것을 갈망하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다른 세계와 더 완벽한 존재 형태가 있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갈구하는 무언가가 있다. 또한 인간이 물리적 법칙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비물리적 힘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 교리를 모르거나 무시한 채, 밀교적 가르침에 의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존재에 대한 심오하고 근본적인 질문들에 답을 주고, 비물리적 힘에 대한 접근을 열어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들은 거짓이며, 그 처방들은 해롭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러한 가르침들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억누른다는 것이다. 타락한 영들은 오컬트 초보자에게 하나님의 심판도, 영원한 고통도 없으며, 오히려 그곳은 모든 것이 쉽고 즐겁다고 주입한다. 그러니 지식을 쌓고,

네게 주어지는 힘을 흡수하라. 그리고 실제로, 때로는 오컬트 수련의 결과로 사람에게 텔레파시, 투시력, “바이오필드로 치유하는” 능력이나 멀리 있는 물체를 움직이는 능력(텔레키네시스) 등 비범한 능력이 드러나기도 한다. 하지만, 곧 보게 되겠지만, 이러한 능력들은 그 사람 스스로 발달한 것이 아니라 **불결한 영들의 조력**을 받아 생긴 것이므로, 매우 위험하고 해롭습니다. 물론, 순진한 초보자를 겁주지 않기 위해 악령들은 교묘하게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스스로를 a) 무해한 방황하는 영혼으로, 혹은 b) 우주에 퍼져 있거나 인간 내부에 숨겨진 비인격적인 비물리적 에너지로 위장합니다. 이러한 오컬티스트들의 관념이 현실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 오컬트 영들의 본질

영혼과의 교감은 *영매술*이나 *매디움* 현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영을 부르는 역사(영매술)는 먼 고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경에서도 이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악된 행위로 언급되어 있다: “죽은 자를 부르는 자들에게로 가지 말며, 점술가들에게로 가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 19:31). “누구든지 죽은 자를 부르는 자나 마술사에게 나아가 그 뒤를 따라 음란하게 행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얼굴을 돌리고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 버리리라” (레위기 20:6, 20:27). 영매술 세션에서 영은 유령의 형태로 나타나거나, 다양한 물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점시를 움직이거

나, 탁자를 두드리거나, 진자(Ouija board)를 흔들기도 합니다. 영매술 세션에서 영매는 트랜스 상태에 빠져 자신의 몸을 영에게 내어주는데, 영은 사람에게 빙의하여 그 사람의 신체 기관을 지배하고, 그를 통해 다양한 행동을 수행하며 여러 가지 계시를 전한다. 현대 ‘뉴에이지’ 사상은 바로 이러한 두 번째 유형의 영혼(혹은 ‘힘’)과의 소통을 ‘채널링(channeling, channel—영어: 전달하다에서 유래)’이라 부르며 대중화하고 있다. 영매(채널러)가 트랜스 상태에 빠져들면, 그의 얼굴과 입술 근육이 무의식적으로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영혼이 매체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면 호흡 리듬에 변화가 생기고, 표정이 때로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하기도 한다. 목소리도 변하여, 예를 들어 여성의 목소리가 남성의 저음으로 들리기 시작한다. 트랜스 상태에서 깨어난 사람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은 매체 상태에서 무엇을 말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처음에는 영혼이 매디엄의 동의 없이는 감히 그 안에 깃들지 못하며, 매디엄 자신이 영혼을 초대해야만 한다. 그러나 반복된 영매 세션 이후에는 영혼의 깃들이 무의식적이고 자발적인 성격을 띠게 되며, 매디엄은 자신의 영혼에 지배당하게 된다.

의심할 여지 없이, 영매주의자들과 영매들 중에는 사기꾼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 저세상의 존재들과 소통하며, 다른 사람들은 얻을 수 없는 정보와 능력을 그들로부터 얻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대다수의 평범한 채널러와 영매들은 자신들이 의지하고 있는 존재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위험한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이들은 결코 무해한 방황하는 영혼들이 아니며, 비인격적인 자연의 힘도 아니다. 오히려 많은 전문 영매와 무당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이 상대했던 영혼들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속였다. 그들은 그들을 지배하고 해치기 위해 선한 척했다. 예를 들어, 오컬티스트이자 힌두교 구루(스승)인 스리 오로빈도(Sri Aurobindo)의 제자인 사트프레임(Satprem)은 다음과 같이 썼다. “모든 오컬티스트들은 영들이 원하는 어떤 형태든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Satprem, *Sri Aurobindo or the Adventure of Consciousness*, New York, Harper and Row, 1974).

로버트 먼로(Robert Monroe)는 자신의 “아스트랄” 여행 중 하나에서 사악한 영들의 뻔뻔하고 집요한 공격을 받았던 사건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싸움이 가장 치열하던 순간, 두 영이 갑자기 그가 가장 사랑하는 두 딸의 모습을 취했다. 그들이 이를 너무나도 예기치 않게, 그리고 믿을 수 있을 만큼 사실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로버트는 저항할 능력을 잃고 거의 죽을 뻔했다 (*Journeys out of the Body*, Garden City, NY, Anchor Books, 1973).

영혼과의 교신에 전념했으며 많은 이들에게 오컬티즘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는 저명한 영매 에마 누엘 스웨덴보리는, 영매들과 영매주의자들이 교신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교활하고 거짓말쟁이라서 그들에게 의지하는 사람이 그들의 진정한 정체와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증언한다. 이 영들은 죽은 자들의 영혼으로 위장하는 뛰어난 배우들이다. 스웨덴보리는 오컬트 초보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

로 경고한다. “이 영들이 무언가를 말할 때, 그들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모든 것을 지어내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은 너무나 당당하고 뻔뻔하게 행동하여, 사람은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만약 사람이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조금이라도 믿는다면, 영들은 지극히 뻔뻔하게 새로운 허구를 지어내어 그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영들을 경계하고 단 한 방울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The True Christian Religion*, New York, E.P Dutton 1936).

이와 유사한 증언은 텔레파시로 손가락과 칼을 구부리는 능력으로 유명한 우리 겔러(Uri Geller)에게서도 들을 수 있다. 그와 그의 스승인 초심리학자 안드리야 푸하리치(Andrija Puharich, M.D.)는 영혼들과 소통할 때 종종 불안한 느낌을 받았으며, 그들의 행동에서 이상하고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곤 했다. 두 오컬티스트는 영혼들이 마치 그들을 놀리는 듯 매우 모호한 행동을 보인다는 사실을 여러 번 확인했다 (Andrija Puharich, Uri, New York, Bantam 1975). 다른 전문 영매들과 매디엄들도 이와 같은 불안한 느낌을 경험했다.

그렇다면, 오컬티스트들의 영혼들이 **거짓말**을 한다면, 그들이 선한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그들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일 수도 없다.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영혼들은 제멋대로 이 세상을 떠돌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람이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게 천국이

나 지옥 중 특정 장소를 정하시며, 영혼은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요한복음 9:27). 따라서 오컬티스트들이 말하는 영들이 천사도 아니고 죽은 자들의 영혼도 아니라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구주께서 “*그는 거짓이며 거짓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자, 즉 마귀에게 복종하는 영들일 것입니다(요한복음 8:44). 따라서 영매와 채널러들은 저세상의 영들을 신뢰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을 큰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절대 믿음을 주지 않을 사람들이, 자신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종종 거짓말을 일삼는 저세상의 존재들을 어떻게 그렇게 순진하게 신뢰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b) 영적 에너지는 비인격적인가?

이제 우리 시대에 널리 퍼진 두 번째 견해, 즉 오컬트 기법이 우주에 퍼져 있거나 그들 자신 안에 숨겨진 비물리적 에너지를 작동시킨다는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견해는 개인적인 신도, 영적 세계도 인정하지 않는 현대의 회의론자들에게 특히 매력적입니다. 자신의 욕망 하나만으로 강력한 비물질적 에너지를 작동시켜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러한 오만한 자의 자존심을 어루만져 준다. 비인격적이고 비물리적인 힘이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일련의 현대 오컬트 이론들이 등장했는데, 이들은

준과학적인 용어로 포장되어 독자들에게 삶의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처방전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현대 오컬트 교설들이 거둔 성공은 엄청나다. 왜냐하면 탐구심은 있지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눈앞에서 마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신비롭고 불가능해 보였던 모든 것이 갑자기 설명 가능하고 달성 가능한 것이 되어 버린다. 두려워할 것도, 누구 앞에서 떨 필요도 없다. 비물리적 힘을 다스리는 법을 배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간단하고 실현 가능하다.

참고: 오컬티즘 중에서도 특히 정신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인간 **내면의** 에너지 원천을 깨우는 방법을 선전하는 흐름이다(A. 클리조프스키, 『새로운 시대의 세계관 기초』). 이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특별한 기법을 익힘으로써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에 대한 입체적인 인식을 발전시키고, 자신과 타인의 건강을 유지 및 회복하며, 어떤 정보에도 접속하는 법을 배우고, 제3의 눈을 열고, 아스트랄 여행을 하고, 자신의 차크라를 여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한다. 정신 에너지를 해방하기 위해 특별한 기법을 통해 차크라를 깨우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약속한다. 사람은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 투시력, 텔레파시, 텔레키네시스 등을 갖게 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분야의 전문가들(A. 클리조프스키)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생체 에너지를 깨우는 것이 많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주제에 대한 상세한 고찰은 여기서 논의하는 범위를 벗어난다. 다만, 차크라를 깨우려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신을 손상시키며, 때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뜨린다는 점만 언급해 두겠다.

흥미로운 점은, 현대 준과학적 오컬트 실험의 “무대 뒤”에서 활동하는 영들 스스로가, 채널러들이 그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공로를 감추는 것에 대해 조금도 서운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영들은 기꺼이 비인격적이고 비물리적인 힘 뒤에 숨는다. 그렇게 해야만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그들의 주된 목표를 더 쉽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그들 입장에서 매우 일관된 태도인데, 바로 그들의 주장인 악마 자체가 다면적이고 교묘한 선동가이기 때문이다. 지적인 탐구가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너에게 초자연적인 지식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신비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는 “내가 너에게 존재의 비밀을 밝혀 주겠다”고 말하고, 권력을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권력을 약속하며,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삶의 모든 축복을 약속한다. 반면 불신자에게는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허구일 뿐이다!”라고 주입한다.

이처럼,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그를 유혹한 뒤, 악마는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끌어내려, 결국 지옥의 심연으로 몰아넣는다. 사람의 사고방식에 적응하는 재주 덕분에, 악마는 고대의 오컬트 신화를 준과학적 용어로 포장하여 많은 현대인들을 현혹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고대 무속 및 영매술 기법을 연구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특별한 학문 분야인 초심리학까지 생겨났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의문이 남는다. 비물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에너지가 존재하는가? 만약 존재한다면, 그 본질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모든 에너지나 힘은 반드시 그것을 생성하는 **근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모든 물리적 에너지나 장(전자기장, 중력장 등)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아원자 입자(광자, 중력자 등)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이러한 물리적 입자들은 비인격적이므로, 그것들이 형성하는 장 역시 비인격적이며 따라서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에너지(영적 힘)도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영적 존재로부터 비롯된다. 그리고 영적 존재들(천사, 인간, 악마)은 **인격체이므로**, 결과적으로 그들로부터 발산되는 에너지는 그들의 도덕적 상태—선하거나 악한—에 따라 물들게 된다. 경험이 풍부한 초감각자들은 이를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도덕적 오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노력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흰색과 검은색 외에도 회색이 있고, 빛과 어둠 외에도 반그림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공기가 없는 공간에는 반그림자가 없으며, 오직 완전한 빛이나 완전한 어둠만이 존재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에도 도덕적으로 불확실한 상태는 없다. 영들(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은 단순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온전히 선한 존재(천사)이거나, 온전히 악한 존재(

악마)일 뿐입니다. 이에 따라 영적 세계에는 오직 두 가지 상태, 즉 천국과 지옥만이 존재합니다. 중간이나 중립적인 상태는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천사에게서 발산되는 힘(에너지)은 언제나 선하며 선으로 이끄는 반면, 악마에게서 발산되는 힘(에너지)은 언제나 악하며 악으로 몰아간다는 사실에 동의해야 할 것이다. 수세기에 걸친 교회의 경험은 이를 입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힘, 즉 “창조되지 않은 신성한 에너지”(성 그레고리 팔라마의 표현을 빌리자면)는 영혼을 깨우치고 생기를 불어넣는 힘입니다. “스승님, 우리가 여기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 제자들은 파보르산에서 신성한 빛이 그들을 비추었을 때 이렇게 외쳤다(마태복음 17:1-13).

그러나 인간은 단순한 영들(천사와 악령)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한동안 도덕적으로 미결정된 상태에 머물 수 있으며, 선과 악 사이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도덕적 양면성과 불안정성 때문에, 그 안의 선과 악은 서로를 상쇄시키며, 그 결과 순수한 영들의 에너지에 비해 인간의 영적 에너지는 약하고 비효율적이다. 이는 마치 원자에서 음전하를 띤 전자 입자가 핵의 양전하를 상쇄시키는 것과 같다. 반면 영적 세계에는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비물리적 힘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그러한 힘이 도덕적으로 정립된 존재들, 즉 천사나 악마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이 이러

한 존재들로부터 발산되는 에너지와 접촉할 때마다, 그는 선에 대한 끌림을 느끼거나 악에 대한 끌림을 느끼게 될 것이다.

참고: 물론 모든 종류의 에너지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들은 창조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다른 선물들과 마찬가지로 이 에너지를 악으로 변질시켰습니다.

따라서 오컬티스트들은 비물리적 에너지의 중립성과 안전성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도, 그분의 천사들도 자신들이 조종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악마들이 기꺼이 오컬티스트들을 돕는다. 바로 그들이 오컬티스트들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부여한다. 그러나 그들이 이를 하는 데는 결코 이타적인 동기가 아니다. 그들은 에너지를 대출 형식으로, 그것도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며 제공한다. 주술사, 마녀, 사탄주의자, 그리고 많은 전문 오컬티스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를 비밀로 간직하고 있다. 이 주장을 근거 없이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전문가들의 몇 가지 의견을 인용하겠다.

마이클 하너(Michael Harner) 교수는 컬럼비아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또한, 그는 뉴욕의 뉴 스쿨 포 소셜 리서치(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에서 인류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샤먼의 길(The Way of the Shaman)*이라는 책을 저술했다. 오컬트 분야에 대한 그의 연구는 샤먼의 힘의

주요 원천이 영의 세계라는 확신으로 그를 이끌었다. “이끄는 영혼 없이는 무당이 될 수 없다. 무당은 강력한 에너지 원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뉴욕, 반탐 1986).

힌두교와 불교의 구루(스승)들 역시 그들의 힘이 영의 세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인드리스 샤(Indries Shah)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구루들은 그 자체로 비범한 영적 힘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들은 영혼들로부터 그 힘을 얻는다. 구루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집중하는 능력뿐이다” (*Oriental Magic*, NY, E.P. Dutton, 1973). 『*The Adventures into the Psychic*』이라는 책에서, 오랫동안 초심리학적 현상을 연구해 온 제스 시언(Jess Shearn)은 다음과 같은 관찰을 제시한다.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위대한 영매들은 자신들이 초자연적인 힘의 도구이며, 그 힘이 자신을 통해 흐른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에게 어떠한 힘도 돌리지 않았다” (NY, Signet, 1982).

오컬티스트들이 때때로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실제로는 저세상의 **영혼들이** 자신을 통해 작용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동서양의 여러 초감각적 치유사들을 연구한 초심리학 연구자 로렌스 르샤(Lawrence LeShah)를 인용하며, 찰스 파나티(Charles Panati)는 “그가 연구한 치유사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치유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것이다”라고 썼다. 반대로, 그들 각자는 바로 ‘영’이 자신을 통해 작용했다

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영의 수동적인 도구로 인식했다. 치유를 행하기 위해 모든 치유자들은 사전에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야 했다”고 썼다 (*Supersenses*, Garden City, NY, Anchor/Doubleday, 1976).

초감각적 치료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연구 중 하나는 『*Healers and the Healing Process*』라는 논문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 10년에 걸친 연구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을 수 있다. “비정상적인 치유에 대한 어떤 연구라도 연구자를 즉시 ‘지도자’, ‘통제자’, ‘수호자’ 등으로 불리는 지적인 영들의 개념으로 이끈다. 이들은 치유자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며, 치유자가 이전에는 의식적으로 알지 못했던 정보를 그에게 제공한다” (Wheaton, IL. Theosophical Quest, 1977). 이 연구는 또한 비정상적인 치유가 영매술과 영혼에 대한 믿음이 널리 퍼져 있는 국가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주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John Ankerberg와 John Weldon이 출판한 『*The Facts on the Occult*』 및 『*The Facts on Spirit Guides*』 (Harvest House Publishers, Eugene, Oregon, 1991)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 간에 오컬티스트들은 그들에게 정보와 비물리적 힘을 제공하는 **실제 영들과** 교감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c) 오컬트 활동의 결과

우리는 이미 이 영들이 천사도 아니고 죽은 자의 영혼도 아니며, 오히려 악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자료들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완전히 확신하기 위해, 그들과 소통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세주께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 선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마태복음 7:16)라고 말씀하시며 지적하신, 영적 현상을 연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오컬티즘에 몰두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사실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확신시켜 줍니다. 가) 영들은 그들과 교감하는 사람들을 온갖 죄와 범죄로 몰아간다는 것; 나) 그들이 건강을 해치고 삶을 망가뜨린다는 것. 실제로 오컬티즘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신적 이상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고, 우울증에 빠지거나, 술에 빠져 지내며, 마약을 남용하게 된다. M. 라마르 킨(M. Lamar Keene)은 13년 동안 전문 영매들 사이에서 지냈다. 그는 공개 고백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내가 직접 알거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 알게 된 모든 영매들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 예를 들어, 이 일을 시작했던 폭스 자매는 절망적인 알코올 중독자로 생을 마감했다. 마음 읽기로 명성을 떨쳤던 윌리엄 슬레이드는 정신이 이상해져 미시간의 정신병원에서 사망했다. 영매 마저리는 절망적인 알코올 중독자로 사망했다... 어디를 보아도 사방에서 똑같은 그

림이 드러납니다. 영매들은 비참한 삶을 살다가 변함없이 더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저는 이 모든 영매주의 현상—사기, 저속한 방탕, 끝없는 술주정, 마약 중독...—에 완전히 짓눌렸습니다. (*The Psychic Mafia*).

게다가 영혼들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사악하고 가학적인 본성을 드러낸다. 하지만 그들은 교묘하게 행동한다. 희생자를 너무 일찍 겁먹게 하지 않기 위해, 점차적이고 체계적으로 고통의 강도를 높여간다. 오컬트 활동을 하는 사람은 과도한 신경과민과 신체적 불쾌감을 겪기 시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고와 각종 불행에 시달리며, 때로는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자살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가 아마도 이 모든 불행을 영혼들이 자초한 것임을 눈치채고, 그들로부터 벗어나 오컬트 활동을 중단하려 할 때, 영혼들은 그 잔혹함을 세 배로 늘려 그를 훨씬 더 큰 불행의 바다에 빠뜨리며, 겁을 주어 다시 자신들에게 돌아오게 만듭니다. 이처럼 고삐를 당겼다 풀었다 하며, 그들은 점차 오컬티스트를 노예로 만들고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끈다.

이 관찰은 권위 있는 『*Encyclopedia of Psychic Science*』의 저자인 난도르 포도르(Nandor Fodor) 박사가 다음과 같이 확인한 바와 같다. “자신 내면의 영매 능력을 억누르려는 시도는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사람이 다시 오컬트 활동에 돌아서면 증상은 사라진다.” (Secaucus, NJ, Citadel, 1974). 유명한 초심리학자 에드가 케이시(Edgar Cayce)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조셉 밀라드(Joseph Millard)는 “그

는 사실상 저세상 세력의 한심한 꼭두각시였다”고 기록하고 있다(*Edgar Choice: Mystery Man of Miracles*, Greenwich, CT, Faucett, 1967). 전직 영매 라파엘 가슨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썼다. “많은 사람들이 영매술을 탐구하기 시작하면서 큰 고통을 겪었고, 그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 큰 불안을 느꼈다. 가족이 해체되고, 자살 시도와 정신 질환이 이 활동을 접했다가 그 힘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The Challenging Counterfeit*, Plainfield, NJ, Logos, 1966).

영매이자 구루인 스리 친모이(Sri Chinmoy), 유엔 자문위원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수많은, 정말 수많은 주술사들과 영과 교감하는 사람들이 목이 졸려 죽거나 살해당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몇 건의 유사한 사례를 직접 겪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다” (*Astrology, the Supernatural and the Beyond*, Jamaica, NY, Angi Press, 1973). 45년 동안 초자연적 현상을 연구해 온 쿠르트 코흐(Kurt Koch) 교수는 “오컬트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살, 비극적인 사고, 정신 이상 사례가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증언한다. 그와 수많은 다른 초심리학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오컬티즘에 몰두하는 것이 변함없이 사람의 신체 건강을 파괴한다고 주장한다. 마치 어떤 내면의 뱀파이어가 오컬티스트의 기력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말이다.

사람들이 오컬티즘의 덫에 빠지는 이유는 처음에는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것이 놀랍고 즐겁게 보이기 때문이다. 말라킨 마틴은 저서 『Hostage to the Devil』에서 종교와 초심리학에 깊은 관심을 가진 물리학 및 심리학 학위 소지자 “칼”이라는 인물의 운명을 묘사한다. 칼은 지인들에게 비범한 초자연적 능력으로 놀라움을 안겨주곤 했다. 자신의 “소명”을 따르며, 그는 환생과 아스트랄 여행에 대한 가르침을 진지하게 연구했다. 이러한 오컬트 과학을 깊이 이해할수록, 그 앞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지평이 펼쳐졌다. 칼은 영리하고 신중한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연구가 과학과 인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미국 한 대학에서 교수직을 맡은 후에도 그는 초심리학과 신비 현상 분야에서 실험을 계속했다. 그러나 점차 그는 자신의 성격과 기분에서 몇 가지 부정적인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가 소통하던 영혼들에 대해 불신과 심지어 두려움까지 느끼기 시작했다. 결국 칼은 자신의 연구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초기 가설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때 그는 마비 증세를 겪게 되고,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친척과 지인들의 기도가 곁들여진 집중 치료 끝에, 무려 11개월이 지나서야 카를은 회복된다. 병원에서 퇴원한 그는 초심리학 분야에서 이론 모든 성과를 부인하고 자신의 질병에 얽힌 비밀을 밝힙니다. “나는 엄숙하고 자발적으로 악령에게 내 자신을 바쳤다. 비록

그 영이 나를 돕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며 선한 존재인 척했지만, 나는 처음부터 내면의 직감으로 그가 악한 존재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오컬트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오컬티즘의 위험성에 대한 수많은 기록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오컬티즘이 무해한 사기 행각이거나, 무해한 여가 활동, 심지어 긍정적인 영적 탐구라는 신화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오컬티즘은 그 어느 것도, 또 다른 것도, 세 번째 것도 아닙니다. “위험한” 형태 외에도 “안전한” 형태의 오컬티즘이 존재한다는 견해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이면 오컬티즘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증거는 어떤 형태의 오컬트 활동이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무언가가 사람에게 “붙어” 버리며, 이는 초자연적인 도움 없이는 떨쳐낼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 초자연적인 존재는 사람의 운명을 조종하기 시작하며, 그를 오컬티즘의 수렁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밀어 넣는다. 이는 에이즈(AIDS)와 유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체내에 침투하면 건강한 세포들에게 마치 ‘자신의 일원’이자 안전한 존재인 것처럼 가장하여 속입니다. 세포는 방어 기제를 내려놓고, 바이러스는 마치 ‘트로이 목마’처럼 세포 안으로 침투합니다. 바이러스는 세포 내부에 들어서야 비로소 그 파괴적인 힘을 드러냅니다. 물론, 사람은 감염된 후에도 몇 년 동안은 비교적 정상적인 삶을 살며, 자신의 날이 얼마 남

지 않았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다. 질병의 말기에 이르러서야 모든 것을 파괴하는 바이러스의 존재가 명백해진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것이다.

오컬티즘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오컬트 영들의 진정한 신을 대적하는 본질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사람이 그들로부터 도움이나 생체 에너지를 받은 후, 신과 모든 신성한 것에 대해 느끼는 설명할 수 없는 혐오감이다.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영적 기분의 급격한 변화가 특히 뚜렷하게 느껴진다. 초능력자나 오컬티스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는 즉시, 그 안에서는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에 가는 등의 모든 욕구가 사라진다. 게다가 이러한 혐오감은 오컬트적인 경로를 통해 얻은 힘의 강도에 정비례한다. 오컬트에 반복적으로 의지하면 사람은 신을 대적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

Kurt E. Koch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전한다. 태국의 한 마을에 기독교 교회의 적극적인 신자였던 원주민 농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무언가에 손을 다쳐 고름이 찬 상처가 생겼다. 열대 기후 탓에 염증이 빠르게 퍼져 나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손의 일부가 짙은 붉은색,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큰 반점으로 뒤덮였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의사에게 가기에는 거리가 꽤 멀었기 때문에, 이 농부는 집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손을 치료하려고 애썼다. 마침내 괴저가 어깨까지 거의 다다랐을 때, 그는 의사를 찾아갔다. 의

사는 그에게 즉시 팔을 절단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곧 괴저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인은 당황하여 “하지만 한쪽 팔로 어떻게 살아가죠? 누가 저를 대신해 버를 심고 수확해 줄까요?”라고 외쳤다. 태국인은 끔찍한 혼란에 휩싸였다. 그때 그는 어떤 신비한 힘으로 사람들을 치료하던 한 노년의 힌두교도를 떠올렸다. 비록 기독교인은 주술사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절박한 상황 탓에 결국 그 힌두교도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 알고 보니 그 힌두교도는 결코 사기꾼이 아니었고, 그의 마법 같은 힘은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 화농성 염증이 멈추었고, 손은 구해졌다. 그러나 주술사로부터 도움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태국인은 교회에 다니는 것을 그만두고 조상들의 이교 신앙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그는 손을 구한 대가로 자신의 영혼을 바친 것이다(*Occult Bondage and Deliverance*, Kregel Publications, Grand Rapids, Michigan, 1970).

조금 더 나아가 K. Koch 교수는 자신이 지금까지 만난 가장 강력한 주술사가 에스키모 샤먼 알루알록이었다고 전한다. 그의 오컬트 능력은 너무나도 막강하여 심지어 몇몇 죽은 이교도들을 부활시키기도 했다. 그 중 한 명은 부활한 후 1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무당은 어떤 전도자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 그는 모든 마법의 힘을 잃었다. 코흐가 어떤 힘으로 기적을 행했는지 묻자, 전직 무당은 단호하게 “물론 악마의 힘이이지!”라고 대답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힘이 확고한 기독교인들에게는 결코 미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늘날 오컬티즘의 위험성은 그것이 종교적, 심지어 기독교적인 활동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더욱 커졌다. 전통적으로 모든 종류의 오컬티즘은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초능력자나 다른 오컬티스트들로부터 “세례를 받으러 가라”, “성당에 머물러라”, “성체를 받아라”, “성수를 마셔라” 등과 같은 조언을 듣기도 한다. 일부 초능력자들은 자신의 세션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올리고, 십자 성호를 긋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마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힘이 작용하는 듯한 인상을 심어줍니다. 이 모든 것은 끔찍한 속임수입니다! 어떤 형태로 포장되든 모든 종류의 오컬티즘은 그 본질상 **반종교적입니다**.

실제로, 현대의 “기독교화된” 초능력 상담 세션에는 오컬티즘의 모든 주요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사리사욕을 위해 초자연적인 힘을 조작하려는 시도입니다. 종교는 창조주에 대한 복종, 믿음, 회개, 도덕적 개선, 천국을 향한 열망, 이타적인 선행을 요구합니다. 반면 오컬티즘의 목적은 “밝은 에너지”를 흡수하고, 세속적인 성공을 거두며, 신비를 깨닫는 것 등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도덕적 의무 없이 이루어집니다. 오컬트에 몰두하는 사람은 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생체장의 힘을 찾습니다. 성화를 바라보며 그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공급원을 봄

니다. 그는 자신의 불순한 일을 위해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거만하게 성물 쪽으로 손을 뻗으며, 이로써 창조주의 위엄을 모독합니다.

그렇다면 초능력자들은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말할까요? “나는 4대째 마법사다”라는 제목의 유리 타라소프와의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께서 생체장, 수기 요법, 심리 치료를 통해 골관절염 환자에게 수술을 걸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비전통 의학의 일부 대표자들—예를 들어 주나, 카슈피로프스키 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 세 사람을 합친 것과 같은 분이신가요? 도술이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타라소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질문 속에 답이 담겨 있습니다. 왜 제가 스스로를 초능력자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그건 초능력자가 평범한 수준의 수술사가 구사하는 기술의 대략 10분의 1 정도밖에 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최면술사, 민간 치료사, 심리치료사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분야는 단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지극히 솔직하게 말한 것입니다. “빙산의 일각,” 그 밑바닥은 지옥 깊은 곳까지 뻗어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오컬트 활동이 **신을 거스르는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 몇 가지 구절을 인용해 보겠다. “네 가운데 점치는 자, 점술가, 마법사, 주술사, 귀신 부르는

자, 마법사, 죽은 자에게 묻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나니, 이를 행하는 자는 누구나 여호와께 가증한 자임 이라”(신명기 18:10-13). “만일 네 가운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네게 표적이나 기적을 보여주고, 그가 네게 말한 그 표적이나 기적이 이루어지며, 또한 말하기를: ‘네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 가서 그들을 섬기자’라고 말한다면,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예언자나 그 꿈을 꾸는 자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게 하려 했으므로 반드시 죽여야 한다”(신명기 13:1-5).

따라서 건전한 종교 생활이 사람을 밝게 하고 도덕적으로 고상하게 만드는 반면, 비정상적인 유사 종교적 오컬트 활동은 사람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파멸로 이끕니다. 모든 종류의 오컬티즘은 반드시 타락한 영들과의 교감으로 이어집니다. 비록 처음에는 이러한 활동이 일에서 성공을 가져다주고, 사람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결국 사람은 타락한 영들로부터 받은 대가에 대해 매우 큰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자기 영혼을 해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영혼을 위해 무엇을 대가로 줄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16:26).

악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

사람은 타락한 영들이 얼마나 사나우며 교활한지, 사람을 유혹하고 온갖 악을 퍼뜨리는 데 있어 얼마나 쉽 없이 활동하며 기발한지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이 지고하신 분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오직 사람이 죄 많은 생활 방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불신과 정욕의 어둠에 빠져들 때, 비로소 타락한 영들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 그들에게 노예가 된다. 불신자와 죄인들은 마귀가 인간 사회에 유혹과 악을 퍼뜨리고 자신의 어둠의 왕국을 확립하기 위해 이용하는 도구이자 군대입니다. 그의 왕국은 거친 바다와 같이 사방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구원을 위협합니다.

이에 대항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 위에 당신의 빛의 왕국, 즉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곳에서 신자는 고요한 섬과 안전한 피난처, 그리고 악령으로부터의 보호를 얻습니다. 실제로, 세례 성사 중에 교회에 입교하는 순간부터 사제가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된 이(청교인)를 향해 낭독하는 특별한 축복 기도가 함께합니다:

“오, 살아 계시는 주님, 주여, 주께서는 이 주님의 종을 원수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시니, 그를 주님의 천국으로 받아들이소서... 그를 모든 원수의 계략과, 사악한 자와의 만남, 한낮의 악마, 그리고 사악한 환상으로부터 구해 주는 빛나는 천사의 삶과 결합시켜 주소서. 그의 마음속에 숨어 동지를 틀고 있는 온갖 교활하고 부정한 영들—미혹의 영, 간사의 영, 우상 숭배의 영과 온갖 정욕, 거짓의 영과 온갖 부정한 것들, 마귀의 속삭임에 따라 활동하는 영들—을 그에게서 쫓아내소서. 그리고 주의 종을 주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거룩한 양 떼의 한 마리 양으로, 주의 교회의 정직한 지체로, 거룩하게 된 그릇으로, 빛의 자녀이자 주의 왕국의 상속자로 삼아 주소서.”

그 후, 물에 세 번 잠기면서 새로 세례를 받은 자는 마귀가 그에게 접근할 수 있게 했던 죄의 더러움에서 정화되고, 마치 밝은 옷처럼 그를 사방에서 감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벧전 2:9; 골 1:12-13). 이 순간부터 교회의 새로운 구성원은 구세주를 본받아,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포악한* 늑대들—마귀와 그 밖의 타락한 영들—로부터 경계하며 지키시는 양 *우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구세주께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리니,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0:1-16, 28).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자가 주님의 보호 아래 머물기 위해 필요한 것은 죄를 피하고 받은 성령의 은혜를 지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교회의 새로운 성도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되자, 다시 그에게 영향을 미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자신의 평소 수단인 유혹을 통해 이를 달성하려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유혹을 물리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만, 만약 그가 방심하여 육신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죄를 짓는다면, 마귀는 다시 그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잔인하게 그를 노예로 삼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며 쉼을 찾으나 찾지 못한다. 그때에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어 있고, 쓸고 치워져 있는 것을 보느니라.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살게 되니, 그 사람에게 마지막 상태가 처음보다 더 나빠지느니라” (마태복음 12:43-45). 이 위험에 대해 경고하며,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촉구합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12).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전투의 한가운데에 있는 그리스도의 전사로 여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형제들아,” 그가 권면하되, “주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능력의 힘으로 굳건히 서라. 마귀의 꾀계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통치자들, 하늘 아래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래야 악한 날에 대적하여 모든 것을 이기고 굳건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엡 6:10-13).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내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여러 가지 수단을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첫째로, 기도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매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마귀)로부터 구하소서*”라고 간구하도록 배웁니다. 아침 기도나 저녁 기도와 같은 많은 기도문에는 마귀의 꾀계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기도서 참조).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독자는 악령에 대항하는 몇 가지 특별한 기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리라*”(마가복음 16:19). 성경과 성인들의 행적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어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주는 무수한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다.

수세기에 걸친 교회의 경험은 악령들이 거룩한 **십자가의 형상과 십자 성호**를 이겨낼 수 없음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것들은 그들에게 마치 곤충에게 불이 그러하듯 작용합니다. 성 니키타 스키파트는 이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악령들은 종종 영혼의 감정을 교란시키고 잠을 앗아가지만, 용기 있는 영혼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십자가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을 받아 그들의 환영을 무너뜨리고 그들 스스로를 도망치게 만든다”(『자비』, 제2권 118쪽). 이와 마찬가지로 성 요한 크리소스톰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단순히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가짐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려야 한다. 만약 네 얼굴에 그렇게 십자가를 그으면, 그 어떤 부정한 영도 네게 다가올 수 없을 것이다. 그 영은 자신이 찔려 치명상을 입은 바로 그 칼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자들의 처형장을 두려움에 떨며 바라본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모든 힘을 무너뜨리고 뱀의 머리를 베어내신 그 무기를 보고 악마들이 얼마나 공포에 질릴지 상상해 보라. 우리 곁에 십자가가 있다면, 악마들은 더 이상 두렵지도 위험하지도 않습니다.”(복음에 대한 담화, 제2권, 제5판, 432-433쪽). 아주 옛날부터 기독교인들은 몸에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하는 것이 관습이 되었다.

자신의 집을 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사 온 집이 이전 거주자들에 의해 더럽혀져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이 죄악된 삶을 살거나, 욕설을 일삼거나, 시끄러운 음악과 불건전한 영화에 탐닉하거나, 오컬트 활동에 몰두했다면 말입니다. 살인이나 자살이 발생한 주거지에 악령이 깃드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주거지를 정화하려면 해당 기도문(아래 참조)을 낭독하며 성수를 뿌리거나, 더 좋은 방법은 사제를 초청하여 아파트를 축성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악마는 **죄에** 이끌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죄를 지은 후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악마가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는 틈이 생깁니다. 죄의 상태는 마치 터널과 같아서, 악마들이 이를 통해 우리의 잠재의식에 침투하여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심 **어린 회개와 고해성사로** 자신을 정화한 뒤,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성체를 **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처럼 온갖 더러움을 소멸시키시고, 어둠의 영들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길을 차단해 주실 것입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성찬을 받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총의 불을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성찬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그분의 은총을 얻기 위해 주신 이 모든 수단들을, 마법의 주문이 아니라, 믿음을 굳건히 하고 덕스러운 삶을 확립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자비의 **통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부정한 영들을 물리치는 몇 가지 기도문입니다.

생명을 주는 십자가를 위한 트로파리

주님,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유산을 축복하소서. 정통 기독교인들에게 대적들을 이길 승리를 주시고, 주의 십자가로 주의 백성을 지켜 주소서.

주님,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유산을 축복하소서. 정통 기독교인들에게 원수들에 대한 승리를 허락하시고, 주의 십자가로 주님께 속한 자들을 보호하소서.

성 십자가에 드리는 기도

(잠들기 전에 바치는 기도)

하나님이 부활하시어 그분의 원수들이 흩어지게 하시고,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분의 면전에서 도망치게 하소서. 연기가 사라지듯 그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불 앞에서 밀랍이 녹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십자가의 성호를 긋는 자들의 면전에서 마귀들이 멸망하게 하소서. 기뻐하라, 지극히 거룩하고 생명을 주는 주님의 십자가여! 주님 위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악마들을 쫓아내시며, 지옥에 내려가 마귀의 세력을 꺾으시고, 모든 대적들을 쫓아내기 위해 우리에게 그 거룩한 십자가를 주신 주님. 오, 영광스럽고 생명을 주는 주님의 십자가여, 성모 마리아와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토록 저를 도우소서. 아멘.

시편 90편

지극히 높으신 분의 도움을 의지하여 사는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되리라. 주님께 이르기를 “주님은 나의 보호자시요 나의 피난처시니,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의지하리이다.” 그분은 너를 사냥꾼의 올가미와 반역의 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분의 어깨로 너를 보호하시며, 그분의 날개 아래서 너는 안전하리라. 그분의 진리가 방패가 되어 너를 지키리라. 너는 밤의 공포도, 낮에 날아오는 화살도, 어둠 속을 배회하는 전염병도, 한낮에 황폐를 일으키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네 곁에서 천 명이 쓰러지고, 네 오른쪽에서 만 명이 쓰러지더라도, 너에게는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오직 네 눈으로만 바라보며, 죄인들에게 내리는 보응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피난처로 삼았다.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아니하며, 역병이 네 거처에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라. 이는 주께서 그 천사들에게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라고 명하셨음이니라. 그들이 너를 손바닥에 받쳐, 네 발이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리라. 너는 독사와 바실리스크를 밟고, 사자와 뱀을 짓밟으리라. 그가 나를 의지하였으니, 내가 그를 구원하고 보호하리니, 이는 그가 내 이름을 알았기 때문이라. 내가 그와 함께 고난 중에 있으리니, 그가 나를 부르면 내가 그의 소리를 듣고, 그를 구원하며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악마의 계락을 물리치는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십자가로 옛 뱀을 쳐부수시고 어둠의 쇠사슬로 타르타로스에 묶으신 분이시여, 저를 그 뱀의 계락으로부터 지켜 주소서. 지극히 순결하신 우리 여주인이시며 성모 마리아, 성 미카엘 대천사와 모든 천상의 군대, 성 요한 세례자, 성 요한 신학자, 성 키프리아노 사제 순교자와 순교자 유스티나, 기적을 행하신 성 니콜라스, 성 니키타 노브고로드스키, 성 요한 상하이 및 샌프란시스코의 기적행자... 그리고 모든 성인들의 기도로, 생명을 주는 십자가의 힘과 수호천사의 중보로, 나를 악의 영들로부터, 간사한 자들로부터, 마법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사악한 시선으로부터, 그리고 원수의 온갖 중상모략으로부터 구해 주소서. 주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저를 악으로부터 지켜 주시어, 제가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져 무사히 천국 왕국의 평온한 안식처에 도달하고, 그곳에서 영원히 저의 구세주이신 주님을, 시작이 없으신 주님의 성부와 모든 거룩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성령과 함께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부록에서 독자는 사제가 특별한 경우에 낭독하는 두 가지 주술 기도를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왕국

불타는 지옥의 문턱에서

성경은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타락한 영들의 활동이 극도로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오컬트주의에 빠져들며 공개적으로 악마를 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멸망해 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 죄인들을 깨우치려 하실 것이나, 그들 대다수는 마치 눈멀고 귀먹은 자들처럼 되어 “*그들의 살인이나, 마술이나, 음행이나,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계 9:21).

그때는 그동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 제압되어 있던 사탄이, 잠시 동안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 일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시기일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은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세상의 종말까지의 전체 기간을 상징적인 숫자인 천 년으로 표기하고 있다. 사도 요한은 예언적인 환상 속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를 보았는데, 그 천사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용, 곧 옛 뱀, 곧 마귀이자 사탄인 자를 잡아 천 년 동안 결박했다. 그리고 그를 무저갱에 던져 넣고 가두어 두었으며, 천 년이 다 차기 전까지는 더 이상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 위에 인장을 찍었다. 그 후 잠시 동안 그는 풀려나게 될 것이니... 나와 민족들을 미혹하리라...” (계 20:1-8). 성부들의 견해

에 따르면, “*용의 결박*”은 그리스도의 부활 시점을 가리키는데, 그때 사탄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죄인들에 대한 이전의 권세를 잃고, 세상에서의 활동이 제한되고 “*결박*”당하게 되었다. 천 년은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세상의 종말 직전까지의 전체 기간을 아우르며, 그때 사탄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틈타 다시 그들 위에 권세를 얻게 되겠지만,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일 뿐이다. 그때 요한계시록의 상징적인 환상에 따르면, 사탄의 영들은 마치 지옥의 메뚜기 떼처럼 사람들이 숨 쉬는 대기 자체를 가득 채우게 될 것이며, 즉 사회 생활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게 될 것이다: “무저갱의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연기가 나왔고, 그 구덩이에서 나오는 연기 때문에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 떼가 땅으로 나왔는데, 그들에게 땅의 전갈들이 가진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 메뚜기 떼의 왕은 무저갱의 천사[마귀]였는데,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 그리스어로 아폴리온(파괴자)이라 하였으니... “땅에 사는 자들아, 화가 있을지어다! 마귀가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맹렬한 분노로 너희에게 내려왔기 때문이다!” (계 9:2-2, 11, 12:12).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파멸시키려는 악마는 자신의 모든 권세를 적그리스도(세계의 통치자이자 기독교의 적)에게 넘겨줄 것이며, “그의 출현은 사탄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권세와 표적과 거짓 기적을 동반할 것”이다(데살로니가후서 2:9). 그의 주요 조력자인 거짓 선지자는 온갖 거짓 기적들로 사람들

을 현혹하고 “큰 표적을 행하여,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서 하늘에서 불을 땅으로 내려오게 할” 것이다(요한계시록 13:13). 물론 그것들은 진정한 기적이 아니라, 부정한 영들의 도움을 받아 행해지는 온갖 정교한 마술일 것이다(계 16:14).

그때는 신자들을 향한 지극히 혹독한 박해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인류의 불신과 타락으로 인해 적그리스도는 “성도들[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전쟁을 벌여 그들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계 13:7). 그러나 이는 단지 겉으로만 보이는 성공일 뿐입니다. 교회 자체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를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교회는 단지 지하로 숨어들 뿐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마귀가 거두는 바로 그 성공이 그의 임박하고 최종적인 파멸을 예고할 것이다. 마침내 고대의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그 날에 주님께서 무겁고 크고 강한 칼로 곧게 달리는 리바이어던 뱀과 구불구불한 리바이어던 뱀을 치시고, 바다의 괴물을 죽이시리라”(이사야 27:1). 신비학자 요한 신학자는 예언적인 환상 속에서 “짐승[적그리스도]이 붙잡히고,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붙잡혀 ... 살아 있는 채로 유황 불이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보았다... 그 후... 그들을 미혹하

던 마귀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못에 던져졌으니, 그곳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으며, 그들은 밤낮으로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것이다”(계 19:20, 계 20:10).

이것이 바로 교만해진 새벽별과, 그와 함께 배반한 영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어둠의 왕국이 맞이할 완전하고도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종말이다! 그들이 지옥으로 내던져짐으로써 세상에서의 모든 유혹과 폭력, 거짓말, 그리고 온갖 악이 끝날 것이며, 구원받은 자들의 영원한 행복이 시작될 것이다. 이 기쁜 때가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에 있어 특히 경계를 늦추지 말고, 사탄이 자신의 완전한 패배 직전에 인류를 향해 쏟아부을 유혹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믿음으로 불타오르도록 스스로를 다잡아야 한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니, 이는 나도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았음과 같으니라*”(계 3:21).

결론

따라서 마귀와 악령들은 상상의 존재가 아니라 실재하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크고 지속적인 위험을 초래합니다.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를 행사할 수 없지만, 사람들의 죄성을 이용해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 각종 범죄로 몰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방법으로 죄를 경계하고 의롭고 거

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타락한 영들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데 매우 능숙하며 막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모든 시간과 노력을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파멸시키기 위해 쏟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활동을 제한하시고 그들의 계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 그들이 우리를 유혹하도록 허락하시는데, 이는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며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악한 영들을 물리칠 강력한 수단들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 기도, 십자가, 성수, 그리고 특히 성체성사입니다. 우리가 천국이라는 평온한 안식처에 도달할 때까지 이 수단들을 활용하여 선을 위해 살아갑시다! 아멘.

악령들의 중상모략을 물리치는 기도

성 미카엘 대천사께 드리는 기도, 위엄 있는 장군께

주님, 위대하신 하느님, 시작도 끝도 없는 왕이시여! 당신의 종인 저를 도우시도록 당신의 대천사 미카엘을 보내시어, 저의 보이는 적과 보이지 않는 적들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소서!

오, 주님의 대천사 미카엘이시여! 주님의 종 (이름)에게 자비의 기름을 부어 주소서.

오, 주님의 대천사 미카엘이시여, 악마를 분쇄하시는 분이시여! 저와 싸우는 모든 원수들을 제지하시고, 그들을 무력하게 하시며,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 재처럼 흩어지게 하소서. 오, 주님의 위대한 대천사 미카엘이시여, 여섯 날개를 가지신, 천상의 군대—케루빔과 세라핌—의 첫 번째 군주이자 지휘관이시여! 오, 기적의 대천사 미카엘이시여! 모든 일에서 저의 도우미가 되어 주소서 — 모욕과 슬픔, 비탄 속에서, 광야와 갈림길, 강과 바다 위에서 — 저의 고요한 안식처가 되어 주소서! 위대한 대천사 미카엘이시여, 죄인인 제가 당신께 기도하며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부를 때, 마귀의 온갖 유혹으로부터 저를 구해 주소서. 그때 제 기도를 들으시고 서둘러 저를 도와주소서. 오, 위대한 대천사 미카엘이시여! 주님의 자주 깃들고 생명을 주는 십자가의 힘으로, 나를 공격하는 모든 자들을 물리쳐 주소서.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와 성도 사도들, 기적을 행하신 성 니콜라스,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스러운 광인으로 살았던 성 안드레아, 성 예언자 엘리야, 성 대순교자 니키타와 에우스타티우스, 경건한 성부들, 성직자들, 순교자들과 모든 성스러운 천상의 세력들의 기도를 통해, 저를 공격하는 모든 자들을 물리쳐 주소서. 아멘.

오, 위대한 대천사 미카엘이시여! 죄인인 저를 도와주소서. 지진, 폭풍, 홍수, 불, 칼, 헛된 죽음, 온갖 악, 사람들의 악의, 그리고 모든 더러운 영들의 계략으로부터 저를 구해 주소서, 주님의 위대한 대천사 미카엘이시여, 항상, 지금, 영원히, 그리고 세세토록. 아멘.

마법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주님의 거룩한 천사들과, 모든 죄에서 깨끗하신 우리 여주인이시며 영원히 동정녀이신 성모 마리아의 기도, 그리고 존귀하고 생명을 주는 십자가의 힘으로, 주님의 성 미카엘 대천사와 그 밖의 하늘의 무형한 천사들의 기도와, 주님의 성 선구자이자 세례자 요한, 성 사도이자 복음서 저자인 신학자 요한, 성직 순교자 키프리아노와 순교자 유스티니아, 성 니콜라이, 미르-리키아의 기적행자 대주교, 성 레오, 카타니아의 주교, 성 니키타 노브고로드스키, 성 요아사프 벨고로드스키, 성 미트로판 보로네즈키, 존경받는 세르기우스, 라도네즈의 수도원장, 존경받는 조시마와 사바티우스 솔로베츠키, 존경받는 세라핌 사로프스키 기적행자, 성녀 순교자 베라, 나데즈다, 류보비,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 소피아, 성 순교자 트리폰, 기적을 행하신 성 요한 상하이, 성 복녀 크세니아, 성 의 의인 요한 크론슈타트 기적행자, 성스럽고 의로운 하느님의 부모 요아킴과 안나, 그리고 주님의 모든 성인들 — 이 합당치 못한 저를 도와주소서, 모든 원수의 모략과 온갖 악—시기와 주술, 마법, 마술, 그리고 간사한 사 람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내게 어떠한 해악도 끼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빛으로 아침과 정오, 저녁, 그리고 다가올 잠자는 시간 동안 저를 지켜 주소서. 주님의 은총의 힘으로 마귀의 부추김에 따라 작용하는 온갖 악한 불경함을 저에게서 물리치고 제거해 주소

서. 만일 어떤 악이 나를 대적하여 계획되거나 행해진다면, 그것을 지옥으로 돌려보내 주소서. 이는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모두 주님의 것이시니, 성부, 성자, 성령께 영원히 영광이 있나이다. 아멘.

성순교자 키프리아누스께 드리는 기도

오, 거룩한 하나님의 종, 성순교자 키프리아누스여, 당신께 의지하는 모든 이를 위해 신속히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여! 우리와 같은 합당치 못한 자들의 이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주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소서: 연약함 속에서는 힘을, 슬픔 속에서는 위로를, 그리고 우리 삶에 유익한 모든 것을 내려 주시기를. 주님께 당신의 강력한 기도를 올려 주시어, 우리를 죄의 넘어짐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참된 회개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마귀의 속박과 온갖 더러운 영들의 작용으로부터 건져내시며, 우리를 해치는 모든 자들을 제압해 주시기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원수와 보이지 않는 모든 원수들에 맞서 우리의 든든한 수호자가 되어 주시며, 유혹 속에서 인내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한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공중의 시련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곳에서 천국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지극히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악령에 시달리는 거쳐
를 위한 사제의 기도**

주 하나님, 우리의 구주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케루빔 위에 들러 오르시며 모든 시작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계시는 분이시여! 주님은 주님을 둘러싼 모든 이에게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하늘을 아치처럼 펴시고, 땅을 창조하시며, 지혜로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땅을 그 자리에서 옮기시며, 해에게 말씀하시면 떠오르지 않게 하시고, 별들의 빛을 제한하시나이다(욥기 9:7). 주께서는 바다를 금하시고 마르게 하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바위가 산산조각 나며,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떨게 되나이다. 주님은 늦문을 부수시고 쇠사슬을 끊으셨습니다. 주님은 강자를 묶으시고 그의 그릇들을 빼앗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은 고문자를 쓰러뜨리시고, 성육신의 낚싯대로 뱀을 잡으시어 묶어 타르타로스의 어둠 속에 가두셨습니다.

주님,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이의 견고한 성벽이신 주님, 모든 악마의 계략과 사탄의 음모, 그리고 모든 원수의 중상을 물려서게 하시고 쫓아내시며 도망치게 하소서. 또한 이 집 주위를 배회하며 모든 이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영들을 이 집에서 멀리 쫓아내소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와, 악마들에게 두려운 표징인 주님의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있는 모든 이를 보호하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악마의 군단을 쫓아내시고, 귀머거리이자 병어리였던 자를 악마의 지배에서 해방시키시며,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말라고 명하셨나이다. 주께서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원수들의 진영을 멸망시키셨으며,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었으니, 원수의 모든 세력도 너희를 해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0:19).

주님, 이 집에 사는 모든 이를 온갖 해와 유혹, 밤의 공포, 낮에 날아오는 화살, 어둠 속을 배회하는 전염병, 한낮에 황폐를 일으키는 역병으로부터 지켜 주소서. 주님의 모든 종들, 여종들과 젖먹이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기뻐하며 천사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한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오니: “주님은 나의 도우심 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리요?” 또 “내가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 하나님, 주님은 나의 견고한 보루이시니이다. 주님은 굳건하신 주인이시며, 평화의 군주이시며, 장차 올 세상의 아버지이시니, 주님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시니이다. 우리는 시작이 없으신 주님의 아버지와 지극히 거룩하신 성령과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지금과 항상, 그리고 세세토록, 아멘.

성 바실리오의 퇴마 기도

사제가 악령으로 고통받는 자를 위해 낭독하는 기도

신들의 신이시며 주들의 주이시며, 불타는 천사들의 창조주이시며, 무형의 힘들의 창조주이시며,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것의 조화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으며, 모든 피조물이 그분 앞에서 떨고 있나이다. 한때 교만해졌던 대천사를 주님께서는 땅으로 내쫓으시고, 그와 함께 배반하여 악의로 인해 악령이 된 천사들을 지옥의 깊은 곳에 가두셨습니다. 주님의 두려운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 주문을, 악의 우두머리와 그와 동조하는 모든 영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늘의 광명으로부터 쫓겨난 자들에게 두려운 무기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도망치게 하시며, 이곳에서 물러나도록 명하시고, 지금 인치어지는 거룩한 십자가로 인해 어떠한 해악도 끼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 주님의 종들이 뱀과 전갈, 그리고 모든 원수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의 인장을 받게 하소서.

이는 모든 숨결이 주님의 이름을, 곧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경외하며 두려움으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항상, 그리고 영원토록. 아멘.

엑소시스트들을 위한 경고

모스크바 신학 아카데미 알렉세이 오시포프 교수의 글을 바탕으로 함.

필요한 지식과 예방 조치 없이 위험한 감염병을 치료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 누구도 자만하여 엑소시스트(전문적인 악령 쫓는 자)의 역할을 자처해서는 안 됩니다. 악마들은 지극히 교활하고 복수심이 강하며, 그들과 맞서 싸우는 사람은 깊은 믿음과 겸손, 그리고 성령의 은총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매우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라오디키아 공의회(364년)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주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자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주문을 외워서 안 된다”(제26조). 성 요한 카시안 로마인은 자칭 기적 행자들을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부정한 영들을 지배하고자 하거나, 병든 자들에게 기적으로 치유를 베풀고자 하거나, 백성들 앞에서 어떤 기이한 표적을 나타내고자 하는 자는, 비록 그리스도의 이

를 부르는 하지만, 오만한 교만 속에서 겸손의 스승을 따르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와는 거리가 멀어진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주술사로 명성을 얻고 싶어 했던 수도사들을 결코 선한 자들이나 허영의 오염에서 자유로운 자들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1]

“사도 규약”(3세기)는 “주술이라는 영광스러운 업적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발적인 은총과 성령의 감화로 이루어지는 일이며, 치유의 은사를 받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를 통해 그 안에 있는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엑소시스트를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

정교회는 항상 “*이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쫓아낼 수 없다*”(마태복음 17:21)는 구세주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즉, 올바른 수행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겸손을 쌓아가며 무정심을 달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악령에 대한 승리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오직 무정심에 이른 자만이 병자와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어둠의 영들과 공개적으로 싸울 수 있다. 그러나 고대에도 그러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으며 [3], 하물며 오늘날은 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사제, 설령 가장 경건한 사제라 할지라도, 특별한 기도와 성사(“*ex opere operante*”)를 통해 스스로 악령을 쫓아내거나(꾸짖거나) 감히 시도한다면, 자신만이 아니라 악령으로부터 모욕을 당할 위험에 처할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를 더 큰 질병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위험도 감수하게 된다.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한 자는 그 은사의 작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서

는 안 된다. 성 이그나티우스는 이러한 시도들에 대해 쓰라린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외쳤다.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연기와 가장 비통한 희극이라니—영적 은사를 갖추지 못한 채 고대 성인들의 역할을 자처하는 장로들” [4].

악마를 쫓아내던 성인들이 있었지만,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직접 지목하신 사람들에게서만 쫓아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단순히” 기도로 치유했는데, 대부분은 타인에게 보이지 않는 내면의 기도였고, 드물게는 외적인 기도(예를 들어, 성 바실리오 대주교와 성 요한 황금입의 기도를 참조)를 드리며, 고해성사, 성유성사, 성체성사를 거행했으나, 어떠한 특별한 주술적 예식 순서도 따르지 않았습니[5]. 이는 그러한 예식이 이미 세례 성사 전에 모든 신자들에게 행해지며, 사탄과 그의 모든 행위에 대한 의식적인 단절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 문제에 관한 성부들의 몇 가지 발언이다.

성 클레멘트 로마의 이름으로 된 “동정심에 관하여”라는 서신에서, 금욕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금식과 기도로, 화려했고 정교하며 세련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치유의 은사를 받은 자들답게 그들을 축출하라.”

아바 **피티리온**은 “영들의 구별에 대해 특별한 힘으로 논하며, 어떤 악령들은 우리의 정욕을 지켜보고 종종 그것들을 악으로 돌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아, 그가 우리에게 말하길, 악령을 쫓아내고자 하는 자는 먼저 **정욕을 정복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정욕을 이기는가, 바로 그 악령을 쫓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정욕들의 악마들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조금씩 정욕을 정복해 나가야 한다” [6].

성 **요한 카시아노스 로마인**의 『신성한 은사에 관하여』라는 대화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악덕에 빠진 사람도 때로는 놀라운 행적을 보이며, 그로 인해 성자이자 하나님의 종으로 숭배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유 은사를 소유했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자조차도, 마음의 교만에 휩쓸려 가장 참담한 타락을 겪게 된다. 이로 인해 악마들은 성스러움의 속성도, 영적 열매도 전혀 없는 사람들을 지목하며, 마치 그들의 성스러움이 그들을 태우는 듯이 가장하여, 자신들이 지배하는 자들로부터 도망치도록 강요하는 척한다” [7].

위대한 바르사누피우스 성자: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알지 못한 채 치유를 받기 위해 애쓰며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8]. 그분은 또 말씀하셨다: “마귀에게 대항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어울리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강인한 자들, 곧 악령들이 그들에게 복종하는 자들에게만 어울리는 일이다. 만일 약한 자 중 누군가가 대항한다면, 악령들은 그를 조롱하며, 자신들 권세 아래 있으면서도 그들에

게 대항한다고 비웃을 것이다. 또한 그들을 제지하는 것은 그들 위에 권세를 가진 위대한 이들의 일이다. 미카엘 대천사처럼 마귀를 제지한 성인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그는 마귀가 넘어질 운명이었기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에게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9].

성 **요한 예언자**는 귀신 들린 자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요청에 이렇게 대답했다. “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 금식하고 기도하게 하라. 그러면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도 들릴 것이니,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힘을 발휘한다’* (야고보서 5:16),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10].

성 **이삭 시린**은 악령들에 대한 거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네가 이미 6천 년이나 된 자들을 가르치려 나섰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네 거만한 거역)는 그들에게 무기가 되어, 네 모든 지혜와 분별력을 불문하고 그들이 너를 타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11].

복자 **테오필락트 불가리아인**: “악마로부터 해방된 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나쁜 상태가 된다” [12].

이그나티우스(브란차니노프) 주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섭리로 사탄에게 넘겨진 고통받는 D.를 기억하여, 그녀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소서...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하나님의 징벌은 결코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성인들이 사탄에게 넘겨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악령에 사로잡히는 것보다, 영혼을 영원히 파멸시킬 수 있는 어떤 원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13].

인용된 성인들의 발언은 우리 민족에게 그토록 중대한 문제인 귀신 들린 자들의 치유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설득력 있게 증언하고 있다.

귀신 쫓기는 행위는 현재 비기독교 서구 전역에 널리 퍼져 있는 소위 오순절주의, 카리스마주의, ‘뉴에이지’ 운동, 그리고 세속 사회에서 소위 초감각적 능력(엑스트라센서리)과 같은 현상과 동일한 영적 차원의 현상이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를 모두 훼손한다.

송배에 대한 마법적 인식은 기독교 종교의 타락과 왜곡, 이교주의, 특히 무신론, 오컬티즘, 사탄주의의 확산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엑소시즘에 관한 기사의 각주.

1. 성 요한 카시아노스 로마인. 저작집. 모스크바, 1892. 445쪽.
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스펜스키 N.D. 『비잔틴 전례』 // 『신학 논문집』. 제21권. 31쪽.
3. 성 이그나티우스 브란차니노프는 “그리고리 시나이트(14세기)가 ‘그의 시대에는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너무나 드물어졌기 때문이다... 하물며 우리 시대에는 기도하는 이가 지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스승들이 없다!’라고 썼다”고 전한다. (이그나티우스(브란차니노프) 주교. 저작집. 상트페테르부르크. 1905. 제1권. 274쪽).
4. 같은 책. 72쪽.
5. 이에 대한 예는 무수히 많이 들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성 이라리온 옴틴스키의 행전(브베덴스카야 옴틴스카야 수도원 출판, 1993. 190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라브사이크. 모스크바, 1992. 126-127쪽.
7. 성 요한 카시아노스 로마인. 앞의 저서. 440쪽.
8. 성 바르사누피오 대성자와 성 요한 성인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한 영적 생활 지침』. 디베예보, 1994. 263쪽. 질문 381.
9. 같은 책. 223쪽. 질문 301.
10. 같은 책. 416쪽. 질문 673.
11. 성 이삭 시린. 《수행자의 말씀》. 모스크바, 1993. 137쪽. 제30편.

12. 복자 테오�필락트 불가리아인. 『마태복음 12, 43-45에 대한 주해』 .
13. 성 이그나티우스(브란차니노프). 『서한집』 . 모스크바, 1995. 217-218쪽.

선교 소식지 062

편집자: 알렉산드르(밀레안트) 주교